

'18 제 5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수상마을 사례집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마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5돌의 연륜이 주는 보다 성숙한 경연과 나눔의 장

기승을 부렸던 역대급 폭염의 기세가 꺾이고, 가을 장마의 여운이 남아 있었던 지난 8월 30일,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제5회 행복마을 콘테스트가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작년의 제4회 콘테스트에서는 시군 분야와 함께 5개 분야 25개 팀이 참여한 관계로 아침 9시부터 매우 빡빡한 일정이었으나 이번에는 시군 분야가 빠져 4개 분야 20개 마을이 경연한 관계로 일정이 비교적 여유로웠다. 경연 행사는 오전 10시에 개최되었지만, 8시 50분부터 접수가 시작되고, 마을동아리 공연팀의 축하공연에 이어, 9시 30분 개회식이 개최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1,500명이 넘는 마을주민들과 지자체 관계자 등이 행사장에 미리 도착하기 위해 새벽잠을 설치며 달려온 열의와 성원에 감사드린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열정이 있기에 행복마을 콘테스트는 대회를 거듭할수록 더욱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다.

길지 않은 농촌개발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개발의 의사결정방식, 또는 거버넌스에 대한 논란을 지속하여 왔다. 개발독재시대에는 『위로 부터의 개발(하향식)』이 풍미하였으나, 성숙한 시민사회에서는 『아래로 부터의 개발(상향식)』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삶의 질 향상법에 근거하여 농촌개발이 국가와 지방 농정의 주류(Mainstream)가 되었던 지난 15년간 상향식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 압도되었다. 그러나 상향식과 하향식은 시대적 여건에 따라 선택하는 농촌개발의 틀일 뿐, 절대적인 선이나 악의 선택이 아니다. 상향식이 민의를 반영하지만 개량적이고, 하향식은 혁신을 가져오지만 독단적일 수 있다. 양방식이 발전적으로 결합되어야 진정한 개발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네트워크 농촌개발』을 등장하게 하고 있다. 혁신을 향해 주민의식을 지속적으로 계발(啓發)하는 새로운 이행전략을 정교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마을만들기의 큰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번 행복마을 콘테스트의 캐치프레이즈는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 마을!』이다. 유아기의 때를 벗는 5돌을 맞이하여 이제는 성숙함을 도모하는 의의이자, 마을주민도 함께, 지역도 함께, 지자체와 국가, 그리고 전문가들도 함께, 그래서 모두가 마을발전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다짐의 표현이다. 위 아래의 구분이 아닌 접합과 융합을 찾아내어 개발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체험』 부문은 예년에 비해 소박하고 흔한 자원을 활용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토리텔링으로 확대시키는 등, 다양한 시도도 함께 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소득과 체험이 마을자산의 착실한 확보와 활용에 기반하여야 장래에도 지속적이고 건실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인식도 생겨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마을의 불충분한 자원이 궁극통(窮即通)으로 이어져, 새로운 소득원 개발의 추동력임을 여러 사례에서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으로 도시근교지역과 원격지역에서 보유 자원을 차별화 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화된 개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총괄심사위원장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최 수 명

『문화/복지』 부문에서는 마을 내부는 물론이고, 신공항 후보지 선정과 취소와 같은 외부 충격요인으로 부터 마을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문화활동 활성화가 특히 돋보였다. 아이에서 고령 노인에 이르기 까지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에 대한 충성심(Royalty)을 유발하는 노력도 바람직한 시도 이었다.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추상적인 독려보다는 마을주민 모두가 동창이어서 이의 없는 구심점으로 초등학교라는 구체적 실체를 택하고, 이 구심점에 집합하여 공동체 의식을 복원한 사례는 몽클하였다. 생태 마을 조성운동 초기에 선구자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 마을 성소(Sanctuary)에 모여 다짐을 되새기었던 사례가 상기된다. 마을활동에 대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마을개발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화를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마을사례도 신선함을 주고 있다.

『경관/환경』 부문에서도 평범한 마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논풀머드 체험장 및 캠핑장, 뉴시터 조성 등 적극적 마을활동이 부작용을 유발하여 갈등이 확산되고, 또는 고속철도 피해보상을 둘러 썩 주민 갈등이 격화된 어려운 상황을 마을주민의 경관과 환경조성 참여를 통해 극복한 사례가 인상적이었다. 경관과 환경을 친환경농업에 결합하고, 이를 축제로 발전시켜 자원화 함으로서 단순한 마을가꾸기 차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신뢰가 마을주민의 적극적 참여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는 성과도 돋보인다. 경관과 환경 조성에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는 인식하에 『화합의 꽃씨』, 가구 자체의 경관조성을 통한 마을경관의 조성, 마을 경관과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 고취 등도 새로운 시도이다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부문에서는 공동묘지, 난개발, 교통혼잡. 그리고 주민의식의 개인화 등 도시화 압력을 받고 있는 농촌지역과 함께, 다목적댐 건설에 의한 수몰마을 등, 쇠락한 원경농촌마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농촌성이 훼손되고 있는 농촌마을에서 농촌다움을 회복하는 과정들이 담겨져 있었다. 경관과 환경 보전, 마을문화 활성화, 그리고 소득활동의 자연스러운 연결이 결국은 농촌성과 공동체 회복으로 순환되는 성과를 실증하고 있다. 주민 스스로 도전과제를 발굴하고, 공동경작을 통해 커뮤니티 농업을 되살렸 으며, 노인들에게 노임을 지불하여 참여의식을 높이려는 시도도 바람직하다.

종합해 보면, 마을만들기는 다양한 분야가 병행되어 함께 발전하여야 이룰 수 있는 종합 및 통합개발방식이 어야 함을 다시 상기하게 된다. 다만 차근차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점 분야를 선택할 뿐이다. 모든 노력이 마을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모아졌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귀농/귀촌자 등 새로운 세대와의 화합과 이들의 활용, 보다 적극적으로는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과 통합의 장이 우리 마을공동체이어야 한다. 마을만들기 주제가 퍼포먼스에 부드럽게 녹아드는 것은 5돌의 연륜이 갖는 성숙함의 또 다른 징표이다. 벌써 내년 대회에 대한 기대가 다가오고 있다.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마을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수상마을 사례집 목차

행복한마을만들기 콘테스트 프로로그	 004
-----------------------	----------

01 소득체험	금상. 홍성군 거북이마을	 010
	은상. 서귀포시 무릉2리마을	 016
	동상. 양양군 송천떡마을	 022
	입선. 거창군 빙기실마을	 028
	입선. 포천시 교동장독대마을	 034

02 문화복지	금상. 밀양시 백산마을	 042
	은상. 영암군 모정마을	 048
	동상. 제주시 금능리마을	 054
	입선. 예산군 초막골마을	 060
	입선. 순창군 두지마을	 066



03 경관환경

금상. 홍천군 열목어마을	 074
은상. 논산시 돌고개숫대마을	 080
동상. 완주군 고산촌마을	 086
입선. 하동군 하남마을	 092
입선. 평택시 궁1리바람새마을	 098

04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금상. 제천시 도화마을	 106
은상. 거창군 갈지마을	 112
동상. 진안군 상가막마을	 118
입선. 제주시 용흥리마을	 124
입선. 용인시 상덕마을	 130

행복한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에필로그	 136
-----------------------	----------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마을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수상마을 사례집

01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소득체험

금상. 홍성군 거북이마을 010

은상. 서귀포시 무릉2리마을 016

동상. 양양군 송천떡마을 022

입선. 거창군 빙기실마을 028

입선. 포천시 교동장독대마을 034

1 마을 공동체의 협력으로 농촌 소득 향상 홍성군 거북이 마을

거북이 마을은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농촌 소득원을 개발하고
공동 사업을 통해 경제 공동체를 일궈냈습니다.

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거북로 436

인구 344명

가구 138가구

마을자원 섬다리, 약천 남구만 선생 생가터, 구산서원, 거북이 마당놀이,
오방제, 한우벚꽃축제, 재너머사래긴발 가는 길

행복마을
성공비법

- 마을 공동체를 생활·경제·문화 공동체로 나누어 구성
- 경제 공동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주민과 함께 마을규약 정립
- 마을 주민들이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다양한 축제



홍성군
거북이마을

010
011

소득
채험



풍부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농촌 소득원 개발

거북이마을은 풍부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 생태와 문화 환경을 복원하였습니다. 마을의 문화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농촌 전통의 테마 마을을 구성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마을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참여 중심의 공동체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동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점차 방문객이 증가하고, 주민 삶의 질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농촌 마을 개발 사업의 농촌 소득원을 마련**하였습니다.



■ 거북이 마을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거북이 마을은 주민 참여 중심으로 다양한 소득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사업을 통해 마을이 단합하여 더 많은 프로그램을 확충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 법인을 계속 설립하여 젊은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형적인 농촌 마을, 다양한 사업으로 경제 공동체 형성

012
013

소득
채험

거북이마을은 2000년 전국 최초 구제역 피해 지역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포기하지 않고 2002년 농촌진흥청지정 농촌 전통 테마 마을 사업을 시작으로 2005년 전통 테마 마을 추진위원회를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2008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9년 **경제 공동체 관리법인 내현마을 운영위 영농조합을 설립**하였고, 2017년 **경제공동체 4개 법인을 추가로 설립**하였습니다. 2017~2020년 농업법인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도전이 마을을 단단히 만들고 지역 사회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원래 논과 밭농사 중심의 전형적인 농촌마을인 거북이마을은 주민들이 협력하여 마을 규약을 정립하고, **경제 공동체를 운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5개의 소득 법인을 운영 중이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화합하여 마을 소득이 180% 증가하였으며, 농지 소득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고 2002년부터 지금까지 총 289억원의 농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하여 소득을 올렸습니다. 특히 친환경 고사리를 전국 최대 규모로 가공·유통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참여 중심의 공동체 사업을 전개하고, 농촌 소득을 향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마을 공동체의 소득은 마을로 환원 됩니다. 마을로 환원되는 시스템을 정착하여 마을을 더욱 풍요롭게 지속·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을 주민이 만드는 경제 공동체

경제 공동체는 주주·조합원 주민 우선의 원칙, 법인 이익 마을 환원 원칙, 주민의 운영 결과 공유 원칙, 주민 감사 원칙, 농산물 주민 우선 구매 원칙, 노동력 주민 고용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소득 법인은 내향마을운영위 영농조합, 보개산 고사리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땅과바다(주), 사회적 기업 (주)지랑, 농업회사법인 동고동락(주) 등이 있습니다.



마을의 정체성을 기본으로 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

거북이마을은 마을 정체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문화 체험 교육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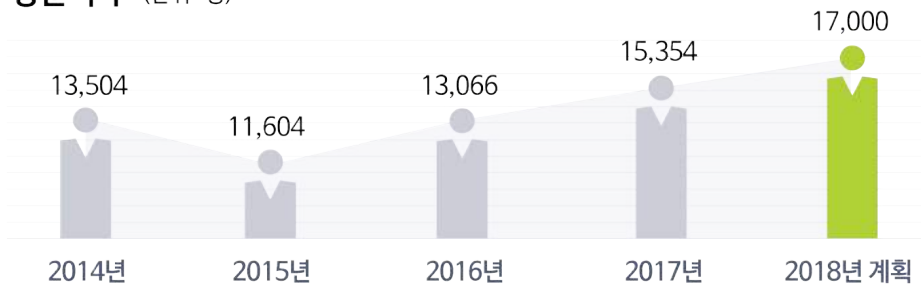
그 중 거북이마당놀이는 마을에 전승되어 오던 축제로 한때 명맥이 끊기기도 했지만, 이를 복원하여 보존회를 설립하였습니다. 300여년 전승되어 온 마당놀이를 계승·발전하고, 전국 민속경연대회에 출연하여 우리 마을의 문화를 널리 떨치고 있습니다.

마을성과

■ 체험소득 (단위: 천원)



■ 방문객 수 (단위: 명)



■ 정부 지원 실적

2002~2003	2008~2013	2009~2017	2015~2017
농촌전통테마마을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사회적기업	행복마을가꾸기사업
·지원부서: 농촌진흥청	·지원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부서: 노동부	·지원부서: 충남도
·지원금액: 200백만원	·지원금액: 4,180백만원	·지원금액: 200백만원	·지원금액: 100백만원

복사꽃 파는 복숭아 마을, 꿈꾸는 무릉도원

2 서귀포시 무릉2리마을

무릉2리 마을은 제주도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지역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와 농촌 간 상생의 길을 열었습니다.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 2852

인구 561명

가구 256가구

마을자원 생태 꽃자왈, 올레코스, 구시흙뚝, 구남물,
곤물, 황개동산, 상동나무

**행복마을
성공비법**

- 마을을 위한 주민들의 소통
- 풍요롭고 활력 있는 아름다운 무릉도원
- 도시민과 마을주민간의 도농교류 활성화

무릉외갓집
MULRANG OFFICE & MARKET



016
017

소득
체험

서귀포시
무릉2리





풍요롭고 활력 있는 아름다운 복사꽃 마을의 발전

무릉2리마을은 제주도 관광지로 유명한 꽃자왈에 있는 복사꽃이 피는 복숭아마을입니다. 농촌 현장 포럼에서 마을을 복숭아 마을의 무릉도원으로 만들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1,200그루의 복사꽃을 심어 군락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기업의 고용 창출, 귀농·귀촌 활성화의 좋은 예시가 되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문 하시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지역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마을 소득공동체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 소득체험마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변화된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변화한 것은 마을의 수익이 생기고, 이러한 수익이 마을 주민들에게 환원된다는 점입니다. 영화, 연극 등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마을 어르신들의 장수 사진 촬영,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험 장소를 오직 체험을 위한 공간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변화가 가장 긍정적으로 변화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지리적 한계, 마을 소득 공동체 운영으로 극복

018
019

소득
체험

무릉2리마을은 올레길 3코스의 접점이고, 질 좋은 농산물이 많이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주민 소득이 적었습니다. 지리적인 조건으로 유통 및 소득 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유통 비용이 비싸고, 1차 중심의 단순한 경제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유통비 절감을 위해 마을주민들이 고심한 끝에 **직거래와 도·농 간 교류를 도입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무릉 2리 내 3개의 자연 마을인 좌기마을, 인향 마을, 평지 마을이 화합하여 **마을 기업을 설립**하였습니다. 자연 마을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을 만들어 **공동의 소득 창출과 문화 복지 활동**을 통해 ‘우리 마을 무릉2리’라는 표현을 되찾았습니다. 마을 공동체 약화의 문제점도 주민들 스스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면서 사라져갔습니다. 또한 마을 소득 공동체의 운영으로 마을 농산물의 신뢰성을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공동 지분 51%, 주민 직접 출자 49%로 구성된 마을 기업 무릉외갓집은 **농산물 꾸러미 사업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특히, 주력 사업인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마을의 제철 생산물을 묶어 집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 농산물 설명 및 관련 퀴즈, 블라인드 테스트 후 만들기 체험, 인근 양봉장과 딸기 농장을 연계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 운영하여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마을기금 적립 및 주민 일자리 창출과 공동 문화 복지 활동 등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신선한 제철 생산물을 배송하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

무릉2리마을은 마을 기업을 활용하여 꾸러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꾸러미 사업은 마을의 제철 생산물의 묶어 집으로 배송하는 사업입니다.

제주도의 지리적 한계와 유통 구조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작하였습니다. 마을에서 생산되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직거래함으로써 마을의 활력을 창출하고 관련 사업을 확대하여 마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을의 활력을 가져다주는 생태 문화 체험 에코파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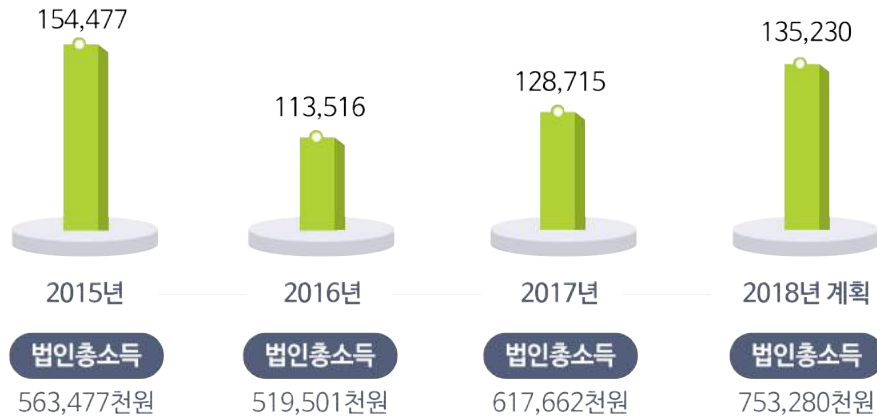
에코파티는 폐교를 활용한 생태 문화 체험입니다. 선사 체험, 농촌 체험, 생태·전통문화 체험, 생태 관광 해설사와 함께 하는 곳자왓 트레킹 등의 활동을 합니다.

이밖에도 제철 과일로 찹쌀떡 만들기, 청굴청 만들기 등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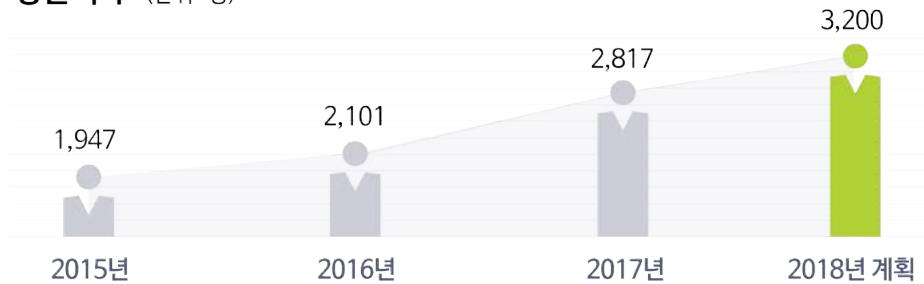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교육받는 시간을 가집니다.

마을성과

■ 체험소득 (단위: 천원)



■ 방문객 수 (단위: 명)



■ 정부 지원 실적

2005	2009	2011~2016	2013
녹색농촌체험마을	자연생태마을	농촌중심지활성화	마을기업지정
·지원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부서: 행정안전부
·지원금액: 200백만원	·지원금액: 55백만원	·지원금액: 6,120백만원	·지원금액: 50백만원



떡 익는 냄새가 진동하는 아름다운 마을

양양군 송천떡마을

아담하고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송천떡마을은
떡 메치는 소리와 떡 익는 향이 가득한 행복 마을로
매년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치 강원도 양양군 서면 떡마을길 107

인구 114명

가구 41가구

마을자원

망령고개 산책로, 마을 다랭이 논, 송천계곡, 오색천계곡,
전통방앗간, 전통 떡, 산채, 버섯류(송이, 능이, 표고)

행복마을
성공비법

- 전통 떡 체험과 판매를 통한 소득증대
-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 고령화에 따른 농촌마을 공동화 현상 해소

농촌食체험마을
(할토음식)

송천리 민속떡마을



송천리 민속떡마을

양양군
송천떡마을

022
023

소득
채
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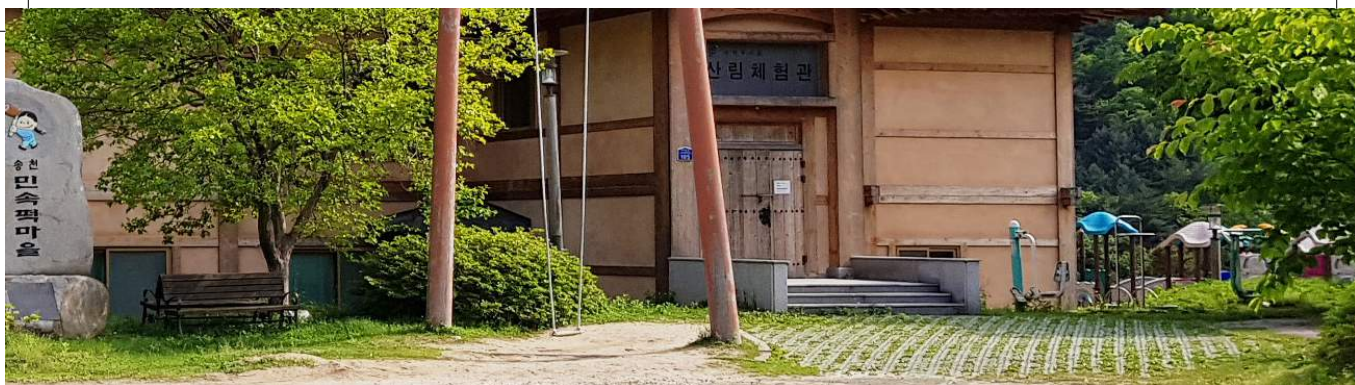
백두대간의 기후 변화로 한계에 도달, 주민 화합으로 극복

송천떡마을은 산채와 송이버섯으로 소득을 올렸지만 기후 변화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기후 영향을 받지 않는 떡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마을 내 호랑바위, 호랑굴, 범어굴, 망녕 고개가 있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를 통한 설화 체험지로 적합한 곳입니다. **1가구 1인 이상이 참여하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회의 총회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마을 의견은 1년 100회 이상의 토론회와 회의를 통해 수정·보완합니다. 운영진의 투명한 경영으로 신뢰를 조성하고, 모두가 노력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였습니다.



■ 송천떡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마을을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천떡마을은 고객 중심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다양한 체험, 휴게음식점, 오토캠핑장 등을 운영하려 합니다. 그리고 마을 자원을 통해 탐방로 개설 및 계곡 트레킹을 통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충할 것입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와서 마을의 정취를 느끼고 편안하게 쉬었다갈 수 있는 마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문객의 증가와 공동체 활동을 통한 농촌 공동화 현상 해소

024
025

소득
체험

송천떡마을은 50년 전통의 떡이 자랑입니다. 70년 초부터 생계유지를 위하여 떡 장사를 하며 살아온 마을입니다. 80년 중반까지 성행했으며, 90년 초부터 마을 공동 사업으로 떡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변 관광지 및 마을 입구에서 떡을 판매하다가 ‘2001년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을 통해 **떡 체험장과 판매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4계절 떡을 만들고, 체험을 통해 365일 판매 하여 소득을 올립니다.



소득체험 프로그램의 방문객은 17년 약 37,000명 정도이며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험 대상은 유치원생, 초·중·고생, 일반 성인이며, 외국인 체험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떡 생산은 기계 20%와 수작업 80%, 어머니의 손맛으로 이루어 집니다. 초창기 부녀회를 중심으로 마을 공동사업이 진행되었고, 지금은 양양의 대표적인 소득체험 마을로 발전하였습니다.

어느 마을보다 여성의 사회 참여 의식이 높고 마을 발전에 이바지하는 바가 큼니다. 앞으로 귀농·귀촌인 및 귀향인이 동참할 수 있는 일을 만들고, 조직의 구성원으로 함께 사회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마을 주민들이 더욱 화합하여 마을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천떡마을은 고령자 수가 증가하여 마을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영농회,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개발위원회, 정보화 운영위를 구성하여 **공동체 활동을 중심으로 마을을 운영**합니다. **방문객의 증가로 마을에 활력이 생기고, 주민들의 화합으로 공동체를 운영하여 농촌의 공동화 현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 가득한 떡을 맛볼 수 있는 떡 체험 및 판매

떡 체험 프로그램은 떡메치기, 인절미·찰쌀떡·쑥개떡·송편 만들기 체험을 운영합니다. 맛보기를 통해 신문 방송, 잡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판매하며, 어머니 손맛을 살린 감성마케팅, 시골 인심 1+1 등의 판매 전략을 활용합니다. 또한 여름철은 냉동 떡을 판매합니다. 친환경 제품, HACCP 인증 업체로 다양한 판로를 통한 소득 창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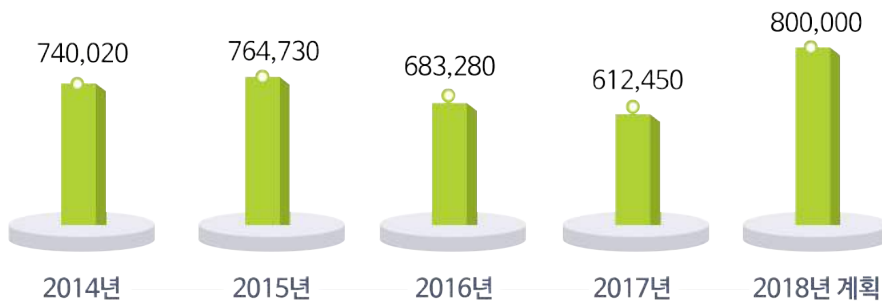


마을 공동체의 신명나는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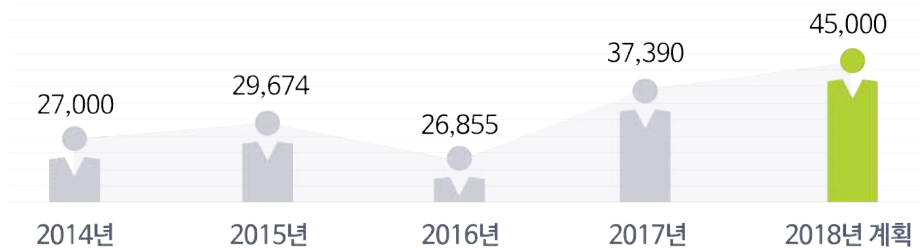
전통문화 활동은 야외에서 제기차기, 그네뛰기, 투호놀이, 디딜방아 찧어보기 등이 있습니다. 먹거리는 떡, 산채비빔밥 등이 있으며, 특산물로는 자연산 송이, 산채(고사리, 참취, 곤드레) 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토 캠핑장을 통한 별보기 체험, 다슬기 잡기 체험 등 계절별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성과

■ 체험소득 (단위: 천원)



■ 방문객 수 (단위: 명)



■ 정부 지원 실적

2001~2004	2004	2008	2012~2013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정보화마을	새농어촌건설운동	산촌생태마을지원
·지원부서: 행정안전부	·지원부서: 행정안전부	·지원부서: 강원도	·지원부서: 산림청
·지원금액: 1,600백만원	·지원금액: 200백만원	·지원금액: 500백만원	·지원금액: 1,400백만원



입선

마을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이 넘치는 마을 거창군 빙기실마을

농촌의 위기에 처한 빙기실마을은
주민 역량 강화를 실현하여
마을 소득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위치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병곡길 448

인구 43명

가구 24가구

마을자원 덕유산, 빙기실(병곡) 계곡, 빙기실 체험 휴양마을,
빙기실 마을 기업, 달빛고운 캠핑장,
마을 안내소 및 농산물 판매장, 특화된 체험프로그램

행복마을
성공비법

- 다양한 주민 역량 강화 실현
- 마을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마을 기업 운영
- 활기를 찾은 마을공동체

거창군
빙기실마을





주민 역량 강화와 함께 활기를 찾은 마을 공동체

빙기실마을에는 인구감소, 고령화, 역량 부족으로 농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한마음 한뜻으로 머리를 맞대어 문제를 해결하면서 서로 이해·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2017년 거창군 주관의 리스타트-체험휴양마을교육에 주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6회(35시간)에 걸쳐 서비스, 위생, 안전, 체험 관련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마을 대학 교육, 농촌 현장 포럼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사무장이 마을해설가, 체험지도사교육을 수료하여 전문성을 갖추었습니다. **서로 목표를 공유하고 삶의 행복과 만족을 느끼면서 주민들이 적극적·긍정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 소득체험마을로서 위기 극복방법이 있나요?

시골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인적자원입니다. 외부 강사의 초빙은 마을 특화 체험을 할 수 없고, 주민 참여가 배제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번 회의 하였고, 결국 주민이 직접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없는 주민들의 진행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체험객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 역량을 강화하였고, 주민들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체험 휴양 마을과 마을 기업으로 지속가능한 자립 기반 조성

030
031

소득
체험

빙기실마을은 작은 산골마을로 농지가 적고, 주민 대다수가 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마을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은 질적, 양적으로 퇴보하였고, 마을 주민은 자신감을 잃고 부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또한 마을 주민 참여가 배제된 권역은 부실 운영으로 부진지구로 평가 받았고, 체험휴양마을은 불량마을로 평가 받아 사무장지원이 중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장과 위원장 등 **일부 주민을 주축으로 주민들을 설득하여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을 주민이 모두 모여 토론과 회의를 통해 마을 조직을 재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체험 휴양 마을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고, 2018년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빙기실영농조합법인과 마을 기업을 설립**하였습니다. 2016년 역량 부족으로 체험이 진행되지 않았으나 2017년 587명이 참여하여 매출 411만원, 2018년 8월까지 3,780명이 참여하여 매출 2,079만원이 발생하여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모두가 힘을 합쳐 마을 환경 정화, 숲속 도서관 정비, 숙박동 정비, 계곡 환경 정화, 해바라기 꽃동산 조성, 제초 작업, 농산물 판매장 개선, 캠핑장 그늘막 설치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활기를 찾자 마을이 발전**하게 되었고, **점차 소득의 안정화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함께하는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빙기실마을 주민이 함께 서로를 돌보는 빙기실 영양원을 설립할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게 쉬어가는 빙기실 체험 휴양 마을

농촌 체험 프로그램은 고로쇠 채취, 강통기차를 타고 동네 한바퀴, 송어 맨손으로 잡기, 산양삼 화분 만들기, 더덕 캐기, 사과파이 만들기, 소시지 만들기, 두부 만들기, 떡메치기 등 약 30가지의 다양한 체험과 사과 밭, 오미자 밭에서 수확 체험이 있습니다. 시골 밥상, 어탕, 촌닭백숙 등의 음식을 제공하며, 송어 회, 송어 구이 등의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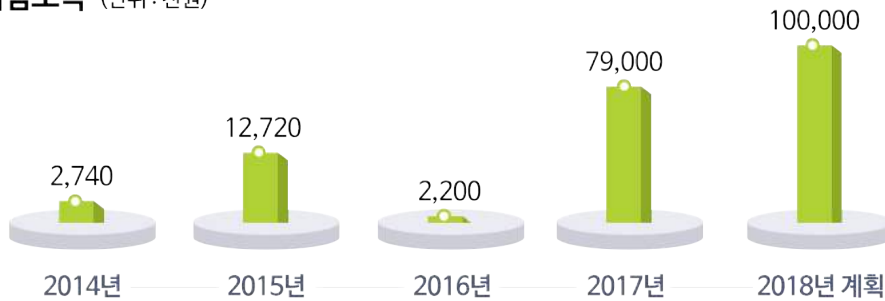


마을 주민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은 빙기실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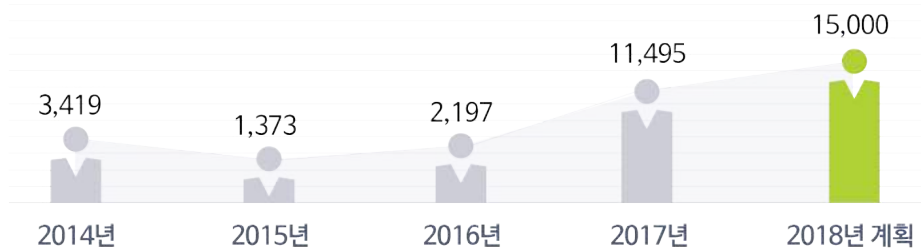
빙기실 축제는 제1회 빙기실 숲속 작은 음악회(2017. 07.29), 제2회 빙기실 달빛 고운 축제(2018. 07. 30/ 2018. 08. 04)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경품은 마을 주민이 기부한 농특산물이었으며, 외부의 지원 없이 주민이 주도한 마을 축제입니다. 빙기실 마을 축제를 KBS '6시 내고향'에서 찾아 오기도 했습니다.

마을성과

■ 체험소득 (단위: 천원)



■ 방문객 수 (단위: 명)



■ 정부 지원 실적

2012 녹색농촌 만들기 ·지원부서: 경상남도 ·지원금액: 200백만원	2012~2015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부서: 경상남도 ·지원금액: 60백만원	2018 매력있는 마을만들기 ·지원부서: 거창군 ·지원금액: 3백만원	2018 마을기업 ·지원부서: 행정안전부 ·지원금액: 50백만원
2018 문화우물사업 ·지원부서: 경상남도 ·지원금액: 7백만원	2018 농촌관광 노후시설 개보수지원 ·지원부서: 거창군 ·지원금액: 10백만원		

입선

어머니의 정성과 기다림의 마학이 있는 마을 포천시 교동장독대마을

수몰민·귀촌인으로 구성된 교동장독대마을은
전통적인 농촌체험 프로그램으로
마을 공동체의 소득을 안정화하였습니다.

위치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신교동로 148-11

인구 82명

가구 25가구

마을자원 마을공동체주민, 멀베리카페, 시집온꽃감, 오디, 누에, 장류

행복마을
성공비법

-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회복
- 역량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보고, 듣고, 즐기는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포천시
교동장독대마을

034
035

소득
체험





수물민과 귀촌인의 마을, 체험 사업으로 소득 안정화

교동장독대마을은 해방과 6·25 이후 실향민과 원주민이 모여 사는 광산촌이었으며, 2006년 한탄강 댐 건설 이후 수물민과 귀촌인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수물로 인한 마을 해체의 어려움과 농사를 지을 땅이 없는 1차 생산의 불가능이라는 현실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하였습니다. 비둘기 낭 폭포, 한탄강 하늘다리, 한탄강 트레킹, 화적연 가마소, 현무암 협곡 등 **수려한 환경 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농촌 체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희망이 없는 마을, 꿈이 없는 마을에서 할 수 있다는 의식 전환으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농촌 체험 사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 소득체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자연의 영향에 자유로울 수 있는 아이템을 찾는 것에 고군분투하였습니다. 실내 건물을 이용하여 쌀 클레이, 푸드 테라피 체험학습을 개발하였으며, 실외 작물을 줄이고 고추, 토마토 등 실내 하우스에서 재배 가능한 상품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나아가 카페와 누에장을 개설하여 체험 프로그램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여러 방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 체험 프로그램으로 경제·복지·문화 공동체 형성

036
037

소득
체험

교동장독대마을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삼시세끼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장, 시집온곶감, 전통 한과, 오디 잼 등 마을 특산품이 있습니다. 전통 음식을 맛보고 제조하는 과정을 체험하면서 도시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먹거리’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나아가 농촌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체험을 통해 교육적 가치를 증대하고, 감성과 인성을 느끼고 배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뽕나무를 식재하여 뽕잎, 오디, 누에 상품을 가공하는 과정 또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다양하고 전통적인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마을 공동체가 협업하는 마을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경제 공동체뿐만 아니라 복지·문화 공동체로 발전하는 것이 마을의 목표입니다. 마을 공동체가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고, 구성원들의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여 물리적·심리적 지지 기반을 형성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수익의 안정화로 마을 공동체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기금을 운영하여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행복 나눔 실버사랑 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또한 내 집 정원 가꾸기를 통해 마을 전체의 공원화를 이루어갈 계획이기도 합니다. 소박한 고향과 어머니의 향기를 더욱 풍성하게 느낄 수 있고,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마을로 발전할 것입니다.





마을 전통을 느낄 수 있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

농촌 체험 프로그램은 장 담그기, 즉석 고추장 만들기, 쌀 클레이, 농산물 푸드 테라피, 쿠키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시세끼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세끼 식사 미션지와 보물지도를 지급하고 직접 농작물을 수확하고 솥에 밥을 해먹는 프로그램입니다. 전통 음식을 제조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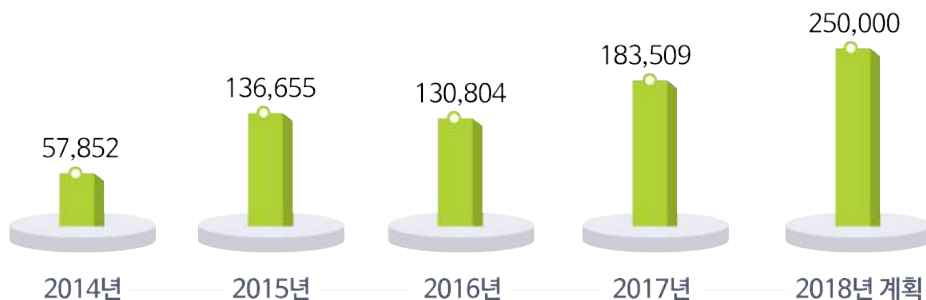


농촌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팜스테이(farm st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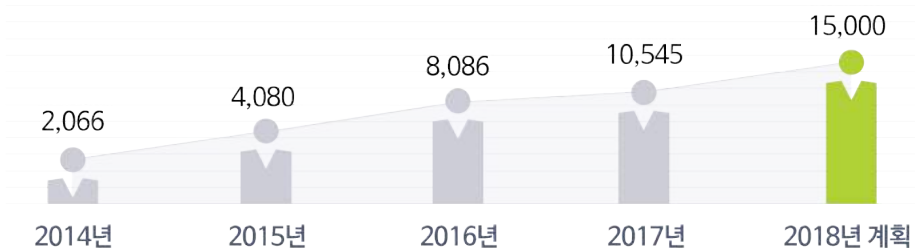
교동장독대마을은 전국 최초 팜스테이 마을로 농촌 체험 숙박 프로그램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적 가치가 있는 농촌'으로 보고, 먹고, 즐기는 삼박자 농업의 가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대상은 도시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1사1촌, 1교1촌 등 도시 공동체와 자매결연 또한 맺고 있습니다.

마을성과

■ 체험소득 (단위: 천원)



■ 방문객 수 (단위: 명)



■ 정부 지원 실적

2011	2016~2017	2012~2016
녹색농촌 체험마을	6차산업수익모델시범사업	평생학습마을
·지원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부서 : 농촌진흥청	·지원부서 : 평생교육진흥원
·지원금액 : 200백만원	·지원금액 : 1000백만원	·지원금액 : 50백만원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마을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수상마을 사례집

02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문화복지

금상. 밀양시 백산마을	 042
은상. 영암군 모정마을	 048
동상. 제주시 금능리마을	 054
입선. 예산군 초막골마을	 060
입선. 순창군 두지마을	 066

폐교를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1 밀양시 백산마을

백산 마을은 폐교를 생활·문화센터로 탈바꿈시키고
다양한 문화 행사와 축제를 개최하여
주민 화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치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백산로 292-10

인구 245명

가구 109가구

마을자원 백산초등학교(폐교), 명례성지, 수산제,
하남뚝방, 낙동강을 낀 넓은 곡창지대

**행복마을
성공비법**

- 폐교를 활용한 문화 공동체 형성
- 마을 영농조합법인구성
- 다양한 문화 복지프로그램 운영



밀양시
백산마을

042
043

문화복지





백산두레영농조합법인, 문화 공동체의 기반 마련

백산마을은 주민 95% 이상이 농사를 짓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입니다. 폐교된 백산 초등학교 주변으로 백내마을, 칠정마을, 송산마을, 신촌마을, 야촌마을 5개의 마을이 주민 공동체를 형성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백산마을은 신공항 유치의 찬반으로 갈등이 있었고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백산두레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고 문화 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문화 복지 사업으로 활성화된 마을을 답사하고 문화 전문가를 초청하여 워크숍을 가졌으며, 지역문화진흥원의 전문 인력 파견 사업에 응모하여 문화 전문가와 함께 문화·복지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 문화·복지 개선 사업을 진행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나요?

주민들이 문화 향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참여도가 낮은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연과 영화 관람 등 농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꾸준히 공연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참여를 독려하여 다함께 문화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폐교의 문화 공간 변신으로 주민 간 반목과 불신 극복

백산마을은 신공항 대상지의 중심이었던 **백산초등학교를 되찾기 위한 노력으로 폐교를 생활·문화센터로 탈바꿈**했습니다. 문화 향유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강사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된 주민강사들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한지 공예, 천연 화장품, 천연 비누, 아로마 향초, 석고 방향제, 에코 가방, 목걸이 등 누구나 쉽고 짧은 시간에 배우고 만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산물 수미감자, 딸기, 수박, 방울토마토, 연근, 표고버섯 등으로 만든 시골밥상을 체험할 수 있으며, 백산마을의 농산물(감자, 연근, 수박, 딸기 등)을 주민들이 손수 준비하여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백산마을은 백산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운영 유지를 위해 **농촌 체험학교, 농산물 체험, 음식 체험, 오토캠핑장 등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 축제를 개최**하여 화합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평생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소소한 일과 이야기가 문화로 만들어 질 수 있고, 그것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문화 공동체로 문화를 향유하면서 주민들 간 쌓여있던 반목과 불신도 점차 사라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문화 공동체로 나아가는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

백산마을은 야외 캠핑장과 영농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공예 수업, 도자기 수업, 피자 만들기 등의 체험을 할 수 있으며, 마을 잔치를 되살려 콩쿠르, 추억의 사진전,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합니다.

공동 수익은 시설물 유지 관리 및 문화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에 환원 될 것입니다.



다채로운 체험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청춘 따라 꿈 따라

고령층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체험을 직접 참여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버킷리스트를 완성하는 사업을 시작하여 문화 향유에 대한 거부감을 없앴습니다. 한글 공부, 시 쓰기 등 공부해 보기, 글과 그림으로 속마음 담아보기, 노래배우기의 활동을 합니다.

마을성과

■ 공동체 활동 실적

				
회원 수 15명	회원 수 20명	회원 수 30명	회원 수 28명	회원 수 3명
문화교실	도자기교실	노래교실	풍물	난타
2016년 : 25회 2017년 : 25회 2018년계획 : 25회	2016년 : 25회 2017년 : 25회 2018년계획 : 25회	2016년 : 20회 2017년 : 20회 2018년계획 : 20회	2016년 : 20회 2017년 : 20회 2018년계획 : 20회	2016년 : 24회 2017년 : 24회 2018년계획 : 24회

■ 문화 활동 실적

구분/연도		2015	2016	2017	2018계획
참여자 수(명)		700	1,000	2,000	3,000
문화	체험	100	200	500	1,000
	교육	100	300	500	1,000
	행사	500	500	1,000	1,000

■ 정부 지원 실적

2015	2015	2017	2018
마을기업	생활문화센터조성	태양광 발전사업지원	창조적마을만들기 (문화복지분야)
·지원부서 : 행정안전부 ·지원금액 : 50백만원	·지원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지원금액 : 100백만원	·지원부서 : 한국전력공사 ·지원금액 : 126백만원	·지원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금액 : 500백만원

2 신명과 활기가 넘치는 행복 마을 영암군 모정마을

모정마을은 사계절 축제와
다채로운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농촌 문화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합니다.

위치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모정1길 41-1

인구 209명

가구 111가구

마을자원 원풍정, 세현문, 사권당, 돈의제, 작은 도서관, 실내 게이트볼장,
아동센터, 할머니 쉼터, 벼락 맞은 이팝나무, 모정저수지,
행복마을 숲, 달맞이 언덕

행복마을
성공비법

- 침체되어가는 마을을 살리기 위하여 사계절 축제 기획
- 원주민과 신규주민의 화합도모
-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



영암군
모정마을

048
049

문화복지



재미있는 전설과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넘쳐나는 마을

모정마을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전설과 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문화재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원풍정과 원풍정 12경, 500년 흥련지와 수변산책로, 팽나무와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울춤사장, 정자 망월정, 석천 임억령 선생과 조선시대 시인 묵객의 풍류가 스며 있는 쌍취정, 도선국사의 전설이 깃든 비죽(飛竹), 효자 광산김씨 가문 3대에게 하사한 삼효자문(세현문), 영암 유일의 첩비(鐵碑)인 관찰사 김병교 영세불망비, 한성기 가야금 명인 생가, 서당 선명제, 광산김씨 문각 사권당, 평산 신씨 문각 돈의재 등이 있습니다.



■ 문화·복지 개선 사업 후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주민 스스로가 마을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인근 관광지에 비해 늘 뒤떨어져 있고,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했던 주민들이 이제는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자랑을 많이 합니다. 자식들에게도 귀향을 이야기하며, 마을을 가꾸는데 스스로 기여하고 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축제와 다채로운 문화 활동으로 화합 도모

모정마을은 마을 행사의 참여 인원수가 점차 줄어들어 명맥만 남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농의 증가와 농업의 기계화로 서로 소통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2012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두레체험관이 생기면서 모정달맞이 풍물단을 결성**하였습니다. 주민 강사가 주축이 되어 장단을 지도하고 모임을 이끌어 매주 2회 2~3시간 연습을 했고, 연습을 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녹색 농촌 체험 마을, 전남 관광 문화 재단 지역 특성화 지원 사업, 문화 이모작 사업을 하면서 다방면으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세시풍속과 동네잔치가 사라져가는 적막한 마을에 신명과 활기를 불러일으킬 살맛나는 마을을 만들고자 **사계절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힘을 모아 풍물단과 다도 동아리 등을 결성하였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기반으로 풍물놀이 체험, 다도 체험, 도예 체험, 줄다리기 체험, 전래놀이 체험(강강술래 등), 한옥체험

(아궁이 불 때기, 야생화, 누정마루 등), 골목길 벽화 체험, 해맞이와 달맞이 체험, 호수 둘레길 걷기 체험, 마을 도서관 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축제와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상호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서로 나누고 아껴주고 챙겨주는 인정미가 넘치는 복지 마을로 거듭날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적인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지구촌 농촌 문화 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국제 커뮤니티 센터를 모정마을에 건립하여 그 중심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 화합의 장이 꽃피는 사계절 축제

봄은 이팝나무 한옥 음악회, 여름은 풍류 연꽃 축제, 가을은 추석 콩쿠르, 겨울은 정월대보름 축제를 합니다. 모정마을만의 이색적인 공동체 자원으로 주민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또한 2022년까지 방문객 10만 명 유치가 목표이며 소득 증대 및 인구 유입에 힘쓸 것입니다.



마을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모정 풍물단

모정 풍물단은 마을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화합을 다지는 든든한 디딤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이웃과 이웃을 이어주며, 더불어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징검다리입니다. 북장단과 장구가락에 마을 주민들이 어울려 마을 찬가를 부르고 어깨춤을 춥니다. 우리 춤과 장단에 깃든 신명과 활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을성과

■ 공동체 활동 실적



회원 수
15명

모정풍물단

2016년 : 32회
2017년 : 36회
2018년계획 : 15회



회원 수
9명

모정차회

2016년 : 8회
2017년 : 10회
2018년계획 : 12회



회원 수
40명

인문학교실

2016년 : 미개설
2017년 : 8회
2018년계획 : 12회

■ 문화 활동 실적

구분/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계획
사계절축제 방문객 수(명)	960	1,410	1,500	1,970	5,000

■ 정부 지원 실적

2010

행복마을사업

·지원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금액 : 300백만원

2011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금액 : 200백만원

2016

작은도서관사업

·지원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지원금액 : 30백만원

2017

좋은경관만들기

·지원부서 : 전라남도
·지원금액 : 40백만원

2017

창조적마을만들기
(마을종합개발)

·지원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금액 : 1,000백만원

3

원담이시(詩)로 피어나는 문화마을 제주시 금능리마을

금능리마을은 공동체 문화 발전을 통하여
이주민과 선주민, 제주와 타 지역, 세대 간
소통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1371

인구 1,16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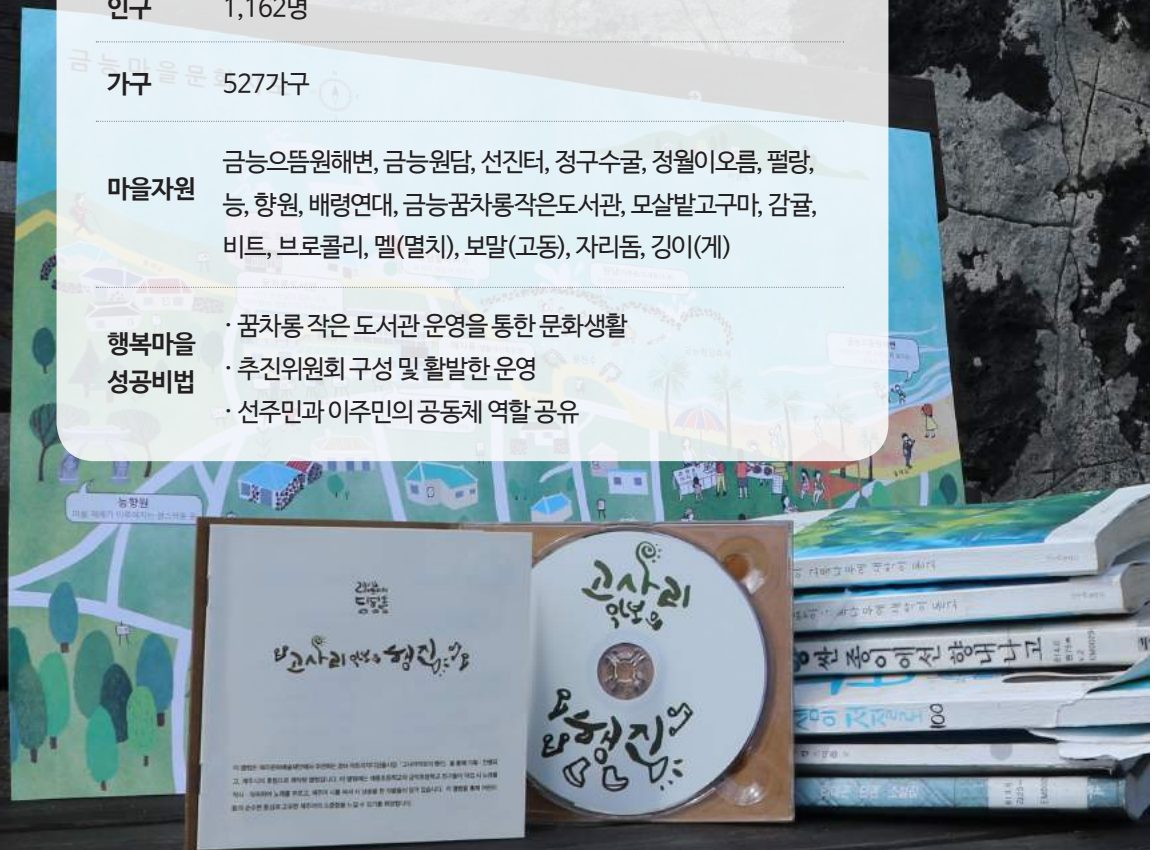
가구 527가구

마을자원

금능뜨뜸원해변, 금능원담, 선진터, 정구수굴, 정월이오름, 펄랑,
능, 향원, 배령연대, 금능꿈차롱작은도서관, 모살밭고구마, 감귤,
비트, 브로콜리, 멜(멜치), 보말(고동), 자리돔, 김이(게)

**행복마을
성공비법**

- 꿈차롱 작은 도서관 운영을 통한 문화생활
- 추진위원회 구성 및 활발한 운영
- 선주민과 이주민의 공동체 역할 공유



제주시
금능리마을

054
055

문화복지





전통적인 농어촌 마을, 문화를 통한 어울림 모색

금능리마을은 주민 대부분이 1차 산업에 종사하고, 특수 작물 및 과수 재배로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많은 전형적인 농어촌마을입니다. 요즘은 타 지역에 비해 어류 및 해산물 어장이 풍부하여 젊은 어민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내 마을 단위로 시인 배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이외 음악가와 미술가 등 다양한 문화 예술인이 마을 안에서 창작 활동 및 후배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금능리마을은 전통적인 농어촌 마을이면서 문화를 통한 어울림을 모색할 수 있는 마을입니다.**



■ 문화·복지 마을을 조성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가장 어려운 점은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마을의 정서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환경의 개선을 통해 서두르지 않고 조금씩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축제를 진행하면서 마을의 단합을 이끌어냈습니다.



금능리 공동체 문화 발전을 통해 주민 간 화합 이룩

금능리마을은 ‘우리’라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 ‘나’라는 개인의 모습이 두드러져 있었고, 원주민과 선주민과의 선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마을이 고령화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났고, 인근 초등학교는 학생 수 부족으로 통폐합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노동의 반복으로 피폐한 삶의 연속이었고, 여가 활동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이주민과 원활한 관계를 맺고, 지역 주민의 건강하고 건전한 삶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역사와 문화 자원,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 평가, 보완하여 행복을 추구하였고 문화 마을로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마을제, 금능리민 단합 체육대회, 햇불 클럽, 금능 원담 축제, 금능 꿈차롱 작은 도서관으로 공동체 문화의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문화 예술의 마을로 환경을 조성하고, 방문객 유치를 통한 경제 수익을 창출합니다.

금능리마을은 **행복한 문화 마을로써 완성도를 향상**하는 것이 마을의 목표입니다. 강당, 체험실, 열람실 강의실, 시청각실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문화·복지 센터를 확장하기 위하여 재건축하고 있습니다. 문화 활동의 공간을 확보하고, 주민과 방문객이 모두 행복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원담 축제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지역 대표 축제로 더 발전할 것입니다. 금능리마을은 **자연과 사람, 환경, 생태가 살아있는 건강한 문화 생태계를 형성하여 문화를 통한 어울림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와 함께하는 금능 꿈차롱 작은 도서관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작은 도서관 조성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마을문고를 꿈차롱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시와 문패가 있는 금능 차롱길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사리 악보의 행진 CD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시를 다양한 예술 매체와 융합하여 시를 더욱 친숙하고 가깝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행복한 문화 마을의 금능 원담 축제

문화 예술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오늘날 사라져가는 원담을 널리 알리고 보존하기 위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마을 자체에서 기획합니다.

‘금능으뜸원해변’은 공식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었고, 2017년 제10회 축제부터 흑자 운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점차 방문객이 증가하고 마을 소득을 창출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을성과

■ 공동체 활동 실적



회원 수
19명

운영위원회

월 1회



회원 수
150명

청년회

월 1회



회원 수
150명

부녀회

월 1회



회원 수
250명

노인회

매일(공휴일 제외)



회원 수
30명

게이트볼 동호회

수시



회원 수
300명

꿈차롱작은도서관

매일(휴관일 제외)



회원 수
40명

금능풍물패

주 1회



회원 수
12명

축제추진위원회

수시



회원 수
13명

꿈꾸는 기자단

수시



회원 수
200명

어촌계

수시



회원 수
16명

생활개선회

수시



회원 수
12명

달차롱극단

수시

입선

가꾸는 농촌, 가꾸는 초막골, 꿈꾸는 사람들 예산군 초막골마을

해가 뜨는 초막골마을은
농촌 문화 전통의 맥을 이어나가며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합니다.

위치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상하벚꽃길 122

인구 156명

가구 73가구

마을자원 용난샘, 빈지샘우물, 방죽터, 소나무군락, 왕벚꽃길, 백일홍꽃길,
무궁화꽃길, 홍농쟁기공장터, 매방앗간, 서낭당이, 말무덤, 열녀문,
질흙토취장, 향명중학교터, 초막골 등산회, 풍물 동아리,
뜨개질 동아리, 노래교실, 오카리나 동아리, 사과농장,
초막골 밤고구마, 초막골 울금, EM 자연향비누

행복마을
성공비법

- 1970년부터 이어져온 마을의 생활사 기록 활동
- 자발적인 마을 주민들의 활동을 통한 공동체 문화 구축
- 공동체 문화 기반의 소득사업을 통한 자립형 복지 모델 구축



예산군
초막골마을

060
061

문화복지



농촌 인구의 감소, 마을 문화유산을 기록하여 전통의 맥을 잇다

초막골마을은 마을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마을 자원을 기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노인회를 중심으로 마을 고유의 문화 자원을 잘 보존하였습니다. 현장 포럼을 통해 마을의 방향성을 찾고,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마을 박물관을 설립하여 장구한 농촌의 문화유산 및 기록물을 구체적으로 계승하고,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마을로 발전하였습니다.** 마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함으로써 농촌의 전통적인 공동체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 초막골마을의 앞으로 바람은 어떻게 되나요?

다채로운 동아리 활동을 통해 문화 활동이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져 마을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길 바랍니다. 오키리나 배우기와 작은 음악회 등을 하면서 주민들이 한층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새로 들어와 살려고 하는 분들도 점점 생기고 있는 추세라 뿌듯합니다. 앞으로 새롭게 이주해 온 주민들과 기존 마을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보듬으며 잘 살고 싶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한 소득 사업으로 자립형 복지 모델 구축

초막골마을은 마을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기 위한 **주민 공동체의 지속적인 노력과 다양한 동아리 활동**으로 초막골마을만의 독특한 마을 공동체 문화를 구축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한궁 동아리는 전국 동아리 대회에 참가하고, 심사위원 자격증을 따서 활동하는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EM 자연향 비누 동아리, 오카리나 동아리 등을 통해 마을이 고령화되어도 즐겁게 살 수 있다는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회를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에 기반하고 있는 소득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친환경 자연향 EM 비누 사업, 밤고구마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은 EM 자연향 비누 만들기 등을 체험해볼 수 있으며, 울금, 밤고구마, 블루베리 등의 먹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나아가 소득 사업의 대상자가 스스로 소득을 통해 수혜자가 되는 자립형 복지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립형 복지 모델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주민들의 삶 자체가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변화하였고, 마을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그것들의 성과를 눈으로 확인합니다. 처음에 그 성과가 즐거움이었다면 성과가 소득으로 이어져 개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마을 주민이 참여하여 이끄는 동아리 문화 활동

등산 동아리, 손뜨개질 동아리, 한궁 동아리, 풍물 동아리, 오카리나 동아리 등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오카리나 공연, 마을 가꾸기, 해외 모자 보내기 등의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술 전시회, 움직이는 예술 정거장, 영화 상영 등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초막골 예술전, 마을 청소, 민속놀이 대회, 전시 및 콘서트의 마을 행사를 개최합니다.



마을의 역사를 계승하는 마을 박물관

초막골마을은 문화·복지 개선사업으로 마을 박물관을 설립하였습니다. 노인회를 중심으로 마을의 역사를 공유하고 마을 기록물을 정리하여 전시하다보니 기억이 기록되고 주민들의 자존감을 고취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현재 마을 박물관으로 선진지 견학을 많이 오게 되고 그로 인해 주민들의 자부심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마을성과

■ 공동체 활동 실적



회원 수
13명

오카리나

2016년: 24회
2017년: 24회
2018년: 15회
2019년계획: 20회



회원 수
8명

등산회

2016년: 30회
2017년: 30회
2018년: 13회
2019년계획: 25회



회원 수
16명

노래교실

2016년: 16회
2017년: 12회
2018년: 10회
2019년계획: 20회



회원 수
20명

마을기자단

2016년: 미개설
2017년: 미개설
2018년: 4회
2019년계획: 4회



회원 수
12명

한궁

2016년: 미개설
2017년: 미개설
2018년: 2회
2019년계획: 20회

■ 정부 지원 실적

2009

참 살기좋은
희망마을

·지원부서: 행정안전부

2013

살기좋은 희망마을

·지원부서: 충청남도

2014

농촌건강 장수마을

·지원부서: 농촌진흥청

2015

창조적마을만들기

·지원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금액: 400백만원

2015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마을

·지원부서: 충청남도



입선

아이부터 어른까지 웃음꽃 생생한 문화 마을 순창군 두지마을

두지마을은 귀농·귀촌인과 화합하여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으로
마을 공동체성을 회복하였습니다.

위치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두승1길 9-5

인구 65명

가구 40가구

마을자원 연못, 섬진강과 강변, 자전거 도로, 달집태우기 행사,
연꽃 음악회, 풍물, 요가, 사진, 서예

행복마을
성공비법

- 귀농귀촌자의 적극적 참여로 세대 간 신뢰 구축
-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마을 공동체성 회복
- 여유롭게 살아가는 인심 좋은 농촌마을



순창군
두지마을

066
067

문화복지





귀농·귀촌인이 함께 참여하여 마을 공동체 복원

두지마을은 최근 귀농·귀촌인이 증가하였고, 농업에 기계화가 도입되면서 두레, 품앗이 등 노동 공동체가 해체되었습니다. 또한 마을의 유일한 문화 행사였던 정월대보름 당산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을 공동체가 무너져 내렸음을 의미합니다. 마을의 무력한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들이 청년회를 조직하여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다채로운 문화 활동을 하면서 마을 공동체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각성하였고, 세대를 아우르며 화합하는 마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각종 공모 사업과 문화 활동을 하면서 세대 간 불신이 해소되고, 마을 전 주민이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 문화·복지 사업 진행 후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마을 주민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본인 손으로 행사와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면서 삶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를 준비하고 성과를 내면서 마을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어졌습니다. 남녀노소 어느 한 사람 소외되거나 배격되지 않는 마을, 주민 모두가 주민 의식이 충만한 자주적인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 활동으로 '살고 싶은 마을, 돌아오는 마을' 형성

청년회가 회의와 모임을 거듭하며, **다양한 문화 활동을 기획**하였습니다. 더불어 주민들의 공감을 얻어 **문화 사랑방을 운영**하고, 한빛 고등학교와 **농촌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민들이 행사를 치르고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작은 음악회, 요가 교실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는 문화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연꽃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꽃 음악회 때는 염색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손수건이나 스카프 재료를 준비해서 방문객들이 직접 염색 체험을 통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두지마을은 마을 내 문화 활동뿐만 아니라 외부의 질 높은 각종 문화 공연을 비정기적으로 관람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작하고 있는 마을 소식지를 형식과 내용에 있어 변화를 주고, 제작 횟수도 늘리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을 귀농·귀촌인을 더욱 유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빈집을 조사하고, 주인의 허락 하에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 처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주민이 적극적으로 화합하여 문화·복지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068
069

문화
복지





마을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두레방

두레방은 농협 폐창고를 개조한 마을 복합문화 시설로 정기적인 문화 행사와 일상적인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마을 회의와 청년회 모임 장소로 활용하고, 농촌 활동 등 외부인 숙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 사랑방, 요가 교실, 영화 감상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위한 북카페도 꾸며놓았습니다.

누구나 참여하고 즐기는 달집태우기 행사

정월대보름에 각자의 소원을 소원지에 적어 달집에 함께 태우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예전 당산제가 여성과 어린이가 배제되었다면, 달집태우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읍내에 사는 젊은 가족들이 찾아와 아이들과 함께 쥐불놀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을성과

■ 공동체 활동 실적



회원 수
18명

요가교실

2014년 : 90회
2015년 : 90회
2016년 : 90회
2017년 : 55회
2018년계획 : 55회



회원 수
13명

진달래모임

2014년 : 6회
2015년 : 7회
2016년 : 7회
2017년 : 7회
2018년계획 : 7회



회원 수
14명

청년회

2014년 : 12회
2015년 : 12회
2016년 : 12회
2017년 : 12회
2018년계획 : 12회



회원 수
10명

천환경작목반

2014년 : 12회
2015년 : 12회
2016년 : 12회
2017년 : 12회
2018년계획 : 12회

■ 문화 활동 실적

구분/행사명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문화사랑방	연꽃음악회	한빛고 농촌활동	문화사랑방
활동 실적 (회)	2015년	1	4	1	1	1
	2016년	1	4	1	1	1
	2017년	1	4	1	1	1
	2018계획	1	4	1	1	1

■ 정부 지원 실적

2014

문화마을지원사업

·지원부서 : 구곡순담행정 벨트협의회
·지원금액 : 6백만원

2015

희망마을조성사업

·지원부서 : 행전안전부
·지원금액 : 100백만원

2015~2017

새뜰마을사업

·지원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금액 : 1,053백만원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마을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수상마을 사례집

03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경관환경

금상. 홍천군 열목어마을 074

은상. 논산시 돌고개숫대마을 080

동상. 완주군 고산촌마을 086

입선. 하동군 하남마을 092

입선. 평택시 궁1리바람새마을 098

1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섬터 홍천군 열목어마을

열목어마을은 힐링치유센터를 운영하여
자연의 가치를 도시민에게 알리고
농외소득을 향상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합니다.

위치 강원도 홍천군 내면 명개로 98

인구 115명

가구 67가구

마을자원

말무덤, 권대감 전설, 오대산 계곡, 통마람 계곡, 명지거리 계곡,
오대산 국립공원, 용복산, 약수산, 다양한 야생동식물,
삼봉 자연 휴양림, 구룡령 옛길, 홍천 은행나무숲,
열목어 서식지(강원도 문화재 제67호)

행복마을 성공비법

- 낙후된 마을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주민과 함께 고민한 노력
- 마을 가꾸기 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환경정화 노력
- 농촌 현장 포럼을 통한 각종 규제에 대한 인식 전환





홍천군
열목어마을

074
075

경관환경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환경 정화 노력

열목어마을은 마을 전체가 문화재보호법으로 규제를 받는 오지마을입니다. 각종 규제로 정신적·개인적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등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녹색 농촌체험마을, 오대산 웰니스사업, 창조 마을 만들기, 농촌 현장 포럼, 농촌전통생태마을 조성 등으로 청정 자연환경이 마을의 희망임을 깨닫고, 이를 보전하여 사람과 환경이 상생하는 삶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생각들이 모이고, 마을 경관과 숲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화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 경관 환경 마을로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나요?

자연과 주민이 상생하는 아름다운 마을, 마을 주민이 행복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마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민 스스로 지켜나가는 열목어 서식지를 만들어 생태 자원을 보존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자원을 이용한 도시민 치유 공간을 만들어 깨끗한 자연 속에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농촌 치유 마을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전 주민이 환경 전문가가 되는 1인 1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열목어와 사람들이 회귀하는 하늘이 숨겨둔 비경

열목어마을은 환경 보존이 마을의 비전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낙후된 마을 이미지에서 벗어나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마을 가꾸기 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환경 정화**에 힘썼습니다. 먼저,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친환경 농사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태우고 버리던 농산물과 그 부산물을 분리수거하였으며, 매년 두 차례 정기적으로 폐농자재를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에는 종량제 봉투 사용을 권장하여 지정된 장소에 두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열목어마을은 **마을 자체 규약을 만들어 정기적인 환경 정화 활동**을 하였습니다. 1사 1촌 교류 행사를 통해 매년 대대적으로 환경 정화 활동을 시작하였고, **힐링치유센터를 운영**하여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는 가치를 학생들에게 교육하였습니다. 도시민들에게는 농촌의 농촌 다움에서 얻어지는 자연 그대로의 '쉼'을 제공한 결과, 현재는 연 방문객 2만 명(유료 방문객 2,100여 명), 농외소득 연 8천만 원

이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주민과 자연이 상생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열목어마을이 이렇게 변화한 것에 감회가 새롭고,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마을 비전을 이해하고 동참한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꾸준히 마을 가꾸기를 해온 주민들의 열정과 노력의 과정들로 자연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후대에 물려줄 유산으로 **지속적인 환경 정화의 노력을 꾸준히 해나갈 것**입니다.



사람과 환경이 상생하는 환경 정화 프로그램

하천 숲 가꾸기, 마을 안길 정비, 마을 꽃밭 조성, 야외의자만들기, 수목관리, 환경 보호 활동(LG 서브원) 등 다양한 자연 보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생태 자원 보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 자원을 이용한 도시민의 치유 공간을 만들어 치유 마을로 거듭날 것입니다. 힐링치유센터를 통해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민 환경 전문가와 함께하는 열목어 프로그램

열목어가 회귀하는 과정을 알고,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목 관리사와 함께 나무를 가꾸며 보존하는 트리 클라이밍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을 속 농촌과 숲의 공간들을 보호하며 보고, 맛보고, 듣고, 느끼는 치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은 옥수수 막걸리, 수제 꽃차, 돌배·오미자 엑기스, 홍천명이(산마늘), 곰취 등이 있습니다.

마을성과

■ 경관 환경 활동 실적



1사1촌(서브원)

회원수 : 80~100명

활동실적 : 2017년/1회, 2018년/1회



노인회

회원수 : 37명

활동실적 : 2017년/14회, 2018년/10회



마을운영위원회

회원수 : 15명

활동실적 : 2017년/20회, 2018년/20회



작목반

회원수 : 4개반

활동실적 : 2017년/10회, 2018년/10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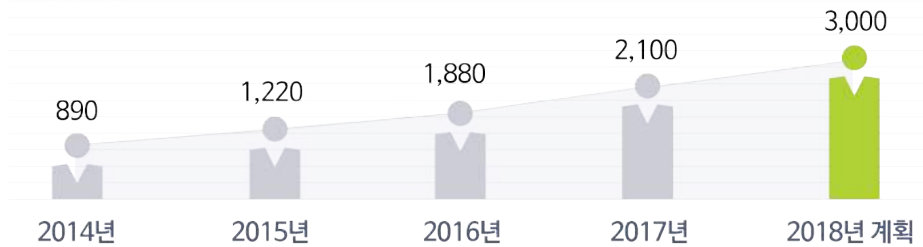


명개리영농조합법인

회원수 : 36명

활동실적 : 2017년/3회, 2018년/5회

■ 방문객 수 (단위: 명)



■ 정부 지원 실적

2010~2011

새농어촌건설운동

·지원부서: 강원도
·지원금액: 500백만원

2010~2011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금액: 200백만원

2012~2014

오대산웰리스사업

·지원부서: 산업통산자원부
·지원금액: 6,000백만원

2015

농촌현장포럼

·지원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금액: 7백만원

2016

창조마을 만들기

·지원부서: 홍천군
·지원금액: 3백만원

2016~2018

홍천 내면 국가생태
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지원부서: 환경부
·지원금액: 6,000백만원

2017

농촌전통생태
마을조성

·지원부서: 농촌진흥청
·지원금액: 50백만원

2018~2020

창조적마을만들기
(마을종합개발)

·지원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금액: 700백만원

2

들꽃이 반기는 아름다운 풍경 마을 논산시 돌고개숯대마을

들꽃 선녀가 퍼뜨린 야화가 가득한
돌고개숯대마을은 '5花 갤러리'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채운로146번길 19

인구 104명

가구 55가구

마을자원 원목다리, 새터, 돌고개, 오화지, 채운초등학교,
마을앞 용수간선, 부녀회, 청년회, 대동회, 노인회,
한글 공부 동호회, 서각 동호회, 색칠 공부 동호회

**행복마을
성공비법**

- 마을의 전통과 자연환경을 활용
- 다양한 체험활동 및 축제 실시
- 마을 5화지 지 유래를 모티브로 갤러리 조성



논산시
돌고개숯대마을

080
081

경관환경





마을에 핀 꽃처럼 주민들의 얼굴에도 웃음꽃 가득

돌고개숯대마을은 산업화로 고속도로와 고속철도가 마을 앞 농경지를 횡단하고, 마을 한복판에 고물상과 축사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쓰레기와 잡초로 마을 전체가 방치되어 있고, 마을 발전이 퇴보한 상태였습니다. 마을의 유래와 전통, 농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 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재거리인 **꽃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 돌고개숯대마을은 앞으로 어떠한 마을을 만들고 싶나요?

주민이 변하고 마을이 변하는 걸 보면서 조금씩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걸치레 사업을 지양하고, 주민들의 행복 감성을 높여주는 소프트웨어적인 공동체 참여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3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고향 같은 마을을 만들고 싶습니다.



‘5花 갤러리’ 중심으로 아름다운 경관 조성

돌고개숯대마을은 주민 모두가 많은 대화와 회의를 거쳐 서로 공존하고, 쾌적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2014년 살기 좋은 희망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역량을 준비하였고, 2015년 농촌 마을 현장 포럼을 이수하여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에 참여하였습니다. **해바라기를 식재하고 벽화를 그려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나아가 2016년 행정 지원 없이 주민 자체적으로 **해바라기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맥주 캔, 강통, 홍합 껍데기, 솔방울, 나무 조각, 과일 포장 봉지, 병뚜껑, 대나무, 소나무 조각 등을 활용하여 농촌 지역에 어울리는 **자연 친화적인 경관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018년 마을 설화인 **5화지지(5花地之) 유래의 특색을 살려 이야기가 있는 5花 갤러리를 추진** 중입니다. 5花 갤러리를 발전시켜 환경 개선을 하고, 체험관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의 빈집을 이용한 화단 조성과 해바라기 씨를 이용한 먹거리 개발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해바라기 기름과 해바라기 과자 등을 맛볼 수 있으며, 해바라기 칼국수 및 식혜 등은 개발 중으로 2019년부터 판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 주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져 항상 웃음꽃이 피는 마을입니다. 주민 모두가 지속적인 마을 정비로 미관에 중점을 두고, 안전하고 편리한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5花 갤러리

5화지(5花地之) 유래와 부합되는 5花갤러리를 테마로 특색 있는 경관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花 진또배기 (숫대) 갤러리, 2花 해바라기 정원갤러리, 3花 이야기 담장 갤러리, 4花 마을 정원 갤러리, 5花 모듬 창작 갤러리가 있습니다.

마을의 적재적소에 설치하여 무(無)에서 유(有)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경관 마을을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 소통의 장이 이루어지는 해바라기 꽃 축제

주민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해바라기 꽃 축제가 3회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 계획하고, 준비하고, 개최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긍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과 지역 주민의 만남, 소통, 행복이 이어지는 장입니다.

앞으로 해바라기 축제의 연중 홍보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을성과

■ 공동체 활동 실적



회원 수
50명

해바라기 축제

2016년 : 1회
2017년 : 2회
2018년 예정 : 3회



회원 수
15명

공예작품 활동

2016년 : 6회
2017년 : 6회
2018년 예정 : 7회



회원 수
20명

향토자원 연구회

2016년 : 2회
2017년 : 2회
2018년 예정 : 4회



회원 수
18명

건강체조

2016년 : 5회
2017년 : 5회
2018년 예정 : 6회



회원 수
14명

노래

2016년 : 5회
2017년 : 5회
2018년 예정 : 7회



회원 수
10명

해피실버 미술치료

2016년 : 4회
2017년 : 4회
2018년 예정 : 6회

■ 정부 지원 실적

2015

기후변화 지원사업

·지원부서 : 충청남도
·지원금액 : 100백만원

2016

희망마을 선행사업

·지원부서 : 논산시
·지원금액 : 30백만원

2017

충남형 동네자치

·지원부서 : 논산시
·지원금액 : 2백만원

2018

농어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사업

·지원부서 : 논산시
·지원금액 : 0.5백만원

3

두리보듬 한 편의 시가 있는 섬마을 완주군 고산촌마을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고산촌마을은
다양한 환경 개선 활동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위치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로 1858-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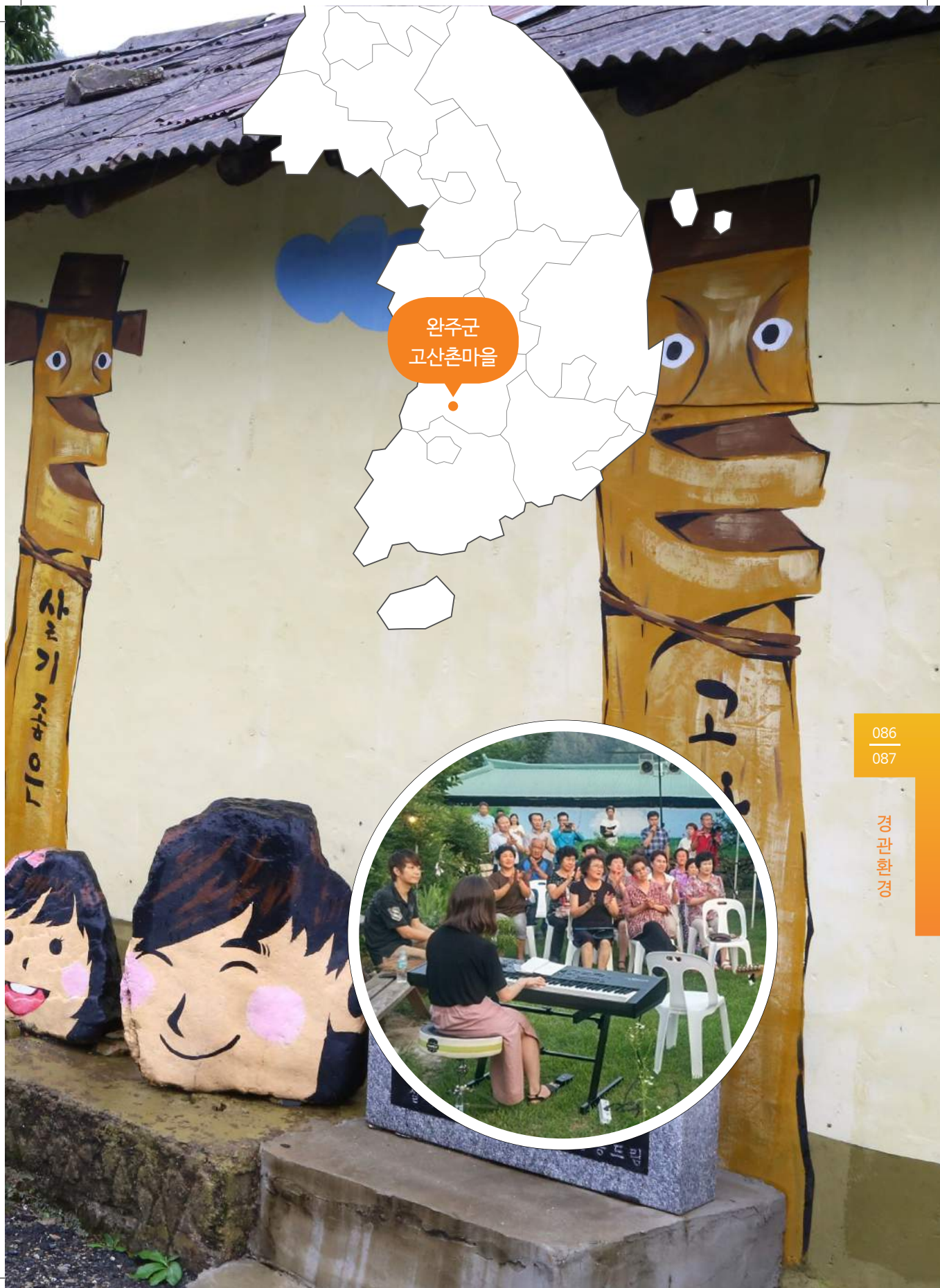
인구 35명

가구 23가구

마을자원 대둔산도립공원(천등산), 뚝섬, 노송, 수달

행복마을
성공비법

- 주민참여로 이루어 낸 경로회관 건축
- 귀농귀촌인, 마을 주민의 50%에 육박
- 마을의 모든 일은 매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공유



완주군
고산촌마을

086
087

경관화경



우리보듬의 마음으로 후대에 아름다운 경관 계승

고산촌마을은 2016년 08월 17번 국도를 기준으로 평촌마을에서 분리된 신규마을입니다. 귀촌한 젊은이들이 주축이 되어 마을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주민들 스스로 돈을 모아 60여 년 된 낡은 집이 있는 땅을 샀고, 이곳에 경로회관을 건축하여 다양한 마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마을 이념은 ‘온 세상을 한껏 보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라는 순수한 우리말 ‘누리 보듬’입니다. **지속해서 환경을 잘 보존하여 아름답고 경관이 좋은 마을을 후대에 물려 줄 것입니다.**



■ 경관 환경 개선을 통해 방문객이 즐길 거리가 무엇이 있나요?

고산촌마을은 천등산과 대둔산, 마을 산책길을 거닐며 야생화를 탐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계천의 다슬기 잡기 등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옥수수, 감자, 곶감 등의 특산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400여 년 된 왕밤나무와 교감하면서 천혜의 자연 경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 개선 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마을 완성

고산촌마을은 각 가정의 담벼락과 마을 안길이 어수선하였고, 쓰레기 소각장 등이 있어서 지저분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경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저분한 하천의 쓰레기와 마을 곳곳의 폐농자재 등을 치우기로 뜻을 모으면서 하나씩 가능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의 쓰레기 소각장을 폐쇄하고 정리하였으며, 모정 주변 하천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안전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덫과 올무를 철거하고, 사람과 자연생태계가 모두 안전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허물어지는 담벼락과 마을 안길에 벽화를 그려서 미관을 향상하고, 주민이 직접 쓴 시를 조각한 조형물과 나무로 만든 장승·숫대 등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꽃을 심고 화단을 조성하여 더욱 아름다운 마을로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마을에서 스토리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가능성을 타진하고, 더욱 힘을 모아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씩 해결을 했고, 모두가 마음을 모으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이 되었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서로 보듬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환경 개선 활동을 통한 마을 환경 가꾸기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벽화 그리기, 마을 게시판 설치, 마을 모정 보수, 마을 표지석 설치, 마을 꽃 식재, 이동식 화단 제작 및 설치, 장승 만들기, 폐냉장고 활용한 책장 설치, 시 게시판 설치 등을 하였습니다. 다양한 환경 개선 활동을 통해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마을 환경을 느낄 수 있는 고품격 힐링 체험 프로그램

야생화 탐방, 다슬기 잡기 등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유아 숲 학교, 어린이 숲 학교, 숲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을 콘서트도 진행하고 있으며, 경로회관 후원자 및 인근 마을 주민을 초대합니다.

고산촌마을의 자연 경관과 환경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을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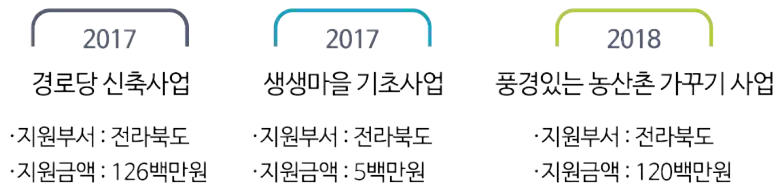
■ 공동체 활동 실적



■ 방문객 수 (단위:명)



■ 정부 지원 실적



입선 화합의 꽃씨를 뿌리는 야단법석 마을 하동군 하남마을

하남마을은 코스모스 꽃길과 돌탑으로
아름다운 마을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화합하는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치 경남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907-7

인구 54명

가구 31가구

마을자원 코스모스길, 마을 돌탑공원, 횡천강, 야단법석 축제, 마을 정자,
돌탑 쉼터, 멜론, 수박, 취나물, 밤, 미나리, 하동 섬진강 쌀, 두부,
황칠 가공품, 각종 효소

행복마을
성공비법

- 소통의 네트워크, 마을의 경관 조성
- 화합의 꽃씨, 코스모스 꽃길 조성
- 버려진 바위는, 희망의 돌탑 건설



하동군
하남마을



092
093

경관환경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 위기극복을 위해 다시 모이다!

하남마을은 2012년 경전선 철도공사로 인한 개별 피해 보상 방법으로 주민 간 갈등이 있었고, 서로 불신이 커져 나가자 이웃 사이에 단절과 고립감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청년회 밴드 운영, 마을 발전회 조직, 마을 공동체 활동 등 열린 소통으로 신뢰를 회복해갔습니다. 횡천강과 지리산 둘레길 등 **마을의 입지적 조건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 경관환경 개선 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우선 환경적인 면에서 집마다 꽃을 가꾸어 경관 환경이 아름답게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간 소통이 생겨 단출한 생활에서 왁자지껄 흥겨운 공동체의 생활로 활력이 생겼으며, 주민 간 소통과 행복으로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직거래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득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하여 공동체를 위해 봉사한다는 자부심이 커졌습니다.



주민이 화합하여 아름다운 농촌 마을 완성

하남마을은 마을 밴드를 통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주민들과 수시로 회의를 하고, 선진지 견학에서 적극적으로 배움을 얻은 것이 마을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개발위원회, 청년회, 부녀회, 경로회에 **단체별 임무를 부여하여 조직적으로 경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회의를 통해 전 주민이 경관 조성 계획을 공유하고, **중장기 경관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더욱더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첫째, **하남마을을 더 아름다운 마을로 가꿀** 것입니다. 황천강 환경 보존 및 친환경 농업 수행, 마을 담장 가꾸기, 계절별 다양한 꽃길 조성, 생물 다양성 유지 및 환경 보존을 위한 환경 모니터링 시행 등을 운영할 것입니다. 둘째, **축제 수익금 및 마을 기금으로 문화 활동을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야단법석 축제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마을 인적 자원 활용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마을 리더 및 동아리 육성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 시행 등을 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주민주도의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사업 추진으로 소득을 높일** 것입니다. 마을 두부 가공 시설 활용, 축제와 특산물 판매 연계,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할 것입니다. 더 많은 아이디어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도시민들의 교류가 증가하길 기대합니다.





마을 주민의 순정이 가득 담긴 코스모스 꽃길과 돌탑

주민들이 직접 화합의 꽃씨 코스모스로 독 1.3km, 국도변 2km, 꽃밭 2.5ha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길을 조성 중 발생한 다량의 돌을 모아 높이 6m, 지름 8m 규모의 돌탑을 조성하였습니다. 돌탑 상층부에는 주민의 염원과 해인사 원각스님의 축시문을 담은 타임캡슐을 봉인하였습니다.

야단법석 축제 기간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돌탑 주변 그늘막을 설치하여 무인 커피숍을 운영합니다.



화합의 꽃씨가 피어나는 야단법석 축제

도시민과 교류하고 행복을 나누는 야단법석 축제입니다. 횡천면 전체가 축제의 장이 되어 코스모스 꽃길 걷기, 횡천강다슬기 만나기, 친환경 밤 즐기, 시골 먹거리 나눔, 꽃차 만들기, 피라미 낚시, 주민과 방문객 어울림 한마당, 노래자랑 및 장기자랑, 초청공연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꾸는 즐거움, 베푸는 즐거움, 함께하는 즐거움, 행복한 공존’으로 모두가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마을성과

■ 경관 환경 활동 실적



코스모스 꽃길 조성

마을 독방 코스모스 꽃길 1.3km,
국도변 꽃길 2km 조성('18년도 20배 확대)



마을 꽃밭 조성시 발생한 잡석을 활용 돌탑 조성

규모 : 높이 약 6m, 직경 약 8m



2017년 제 1회 황천강 야단법석 축제 개최 (2017. 9. 30.)

음식물 및 특산물 판매, 후원금 16백만원 수익 발생
방문객 500명 식사제공, 외부인 약 3,000명 방문

■ 방문객 수 (단위: 명)



■ 정부 지원 실적

2014 ~ 2018

남산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지원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금액 : 4,320백만원

2018

문화우물사업

·지원부서 : 경남 문화예술진흥원
·지원금액 : 6백만원



입선

바람과 노을이 머무는 행복한 마을 평택시 궁1리바람새마을

사계절 꽃이 있는 궁1리바람새마을은
화합하는 마을, 꿈꾸는 마을, 색깔 있는 마을로
복지 증진과 행복 추구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위치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새악길 18

인구 93명

가구 35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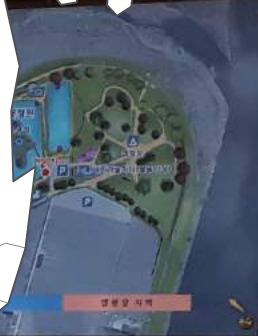
마을자원 바람새습지, 다라고비나루터, 유채꽃단지, 연꽃단지,
부들군락지, 꼬리명주나비 서식지, 지하 머드와 지하 염수,
소풍 정원, 진위천 노을

행복마을
성공비법

- 마을을 변화시킨 유채꽃 한 송이
- 다양한 축제를 통한 방문객 유치
- 마을 경관 조성을 통한 주민들의 화합

평택시
궁1리바람새마을

합안내도



이 소풍정원입니다.
이정원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소풍길 따라가다 보면 연꽃 습지와 모래 놀이터,
조동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강의 쏘대를 찾아보는 것 또한 색다른 재미를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울 연못은 철새와 갈대를 함께 볼 수 있는 곳으로 친위천의 맑은
자연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



098
099

경



아름다운 마을경관을 조성하면서 공동체의 소중함 인식

궁1리바람새마을은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마을에서 농촌 체험 마을, 캠핑장, 소풍 정원의 조성으로 방문객이 증가하여 활력이 넘치는 마을로 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익금 분배와 운영권 다툼으로 주민 갈등이 심화되었고, 침체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란 유채 물결**에서 마을 주민들의 마음에도 희망의 물결이 넘쳐 인식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갈등 해소 및 화합의 손짓을 이루어냈고, 마을 공동체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마을 공동 사업의 추진 동력이 되었습니다.**



■ 경관 환경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경관 개선의 대상지가 논과 습지로 한계성과 차별성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논이라는 특성상 배수가 취약하여 작물의 적기 파종과 재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계화와 재배 방법으로 이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습지와 하천은 국가 소유로 마을에서 이용하는 것에 제약요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협조로 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나 되어 다채로운 축제 개최

궁1리바람새마을은 2008년 녹색 농촌 체험 마을로 선정되면서 체험소득 사업으로 논밭 머드체험장을 조성하여 대박을 터뜨렸지만, 피부병 발생과 수익금 분배 갈등으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방치된 마을에 개선이 필요함을 느끼던 중 우연한 기회에 유채꽃이 마을 변화의 꽃바람이 되었습니다. 2016년 **유채꽃 축제를 시범 개최**하여 12,000명의 방문객을 맞이하면서 마을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유채 씨를 채종한 일부 논에 **코스모스를 가꾸어 가을 황금 들판과 조화를 이루는 축제로 미관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의 도움과 마을 주민의 화합으로 마을의 꿈을 세우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초 작업, 꽃나무 심기, 정화 활동 등을 통해 **마을 경관 가꾸기와 환경 보전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마을 경관 개선 구역을 5구역으로 나누어 조직별 분담 관리와 함께 분기별 평가회를 통한 시상으로 주민들의 화합과 결속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마을 경관 환경을 보전하고 보호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마을 주민들 스스로 행복하고, 이웃이 다 함께 행복하며, 미래의 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도록 마을 경관 환경 개선에 노력할 것입니다.

마을 활성화를 위해 **유채꽃 축제, 코스모스 축제, 다리고비 문화 축제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핑크 물리 그라스 축제 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궁1리바람새마을의 비전은 아름답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경관 형성과 환경 보전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마을, 주민이 함께 즐겁게 어울리는 마을, 방문객이 찾아와서 행복을 느끼는 마을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을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다채로운 문화 축제

소풍정원, 바람새길, 꼬리명주나비를 연계한 유채와 코스모스 축제, 다리고비 문화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사진 콘테스트, 유채꽃 비누 체험, 유채 비빔밥 체험, 코스모스 엽서 제작, 꼬리명주나비 그리기, 부들 인형 꾸미기 등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향미, 바람떡, 사대 나물, 유채 비빔밥, 배추꼬랑이 김치 등을 맛볼 수 있습니다.

쥐방울덩굴에 물려올 꼬리명주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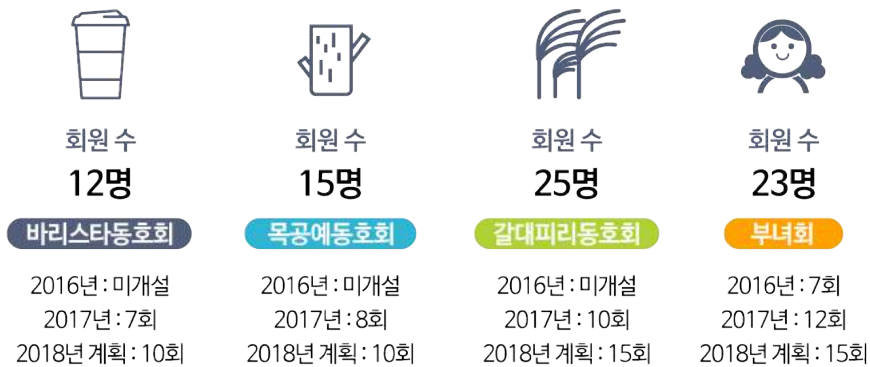
꼬리명주나비는 우리나라 고유종의 호랑나비과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날개짓이 우아하고 쥐방울덩굴 주변에만 서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300㎡의 서식지를 조성하였으며 마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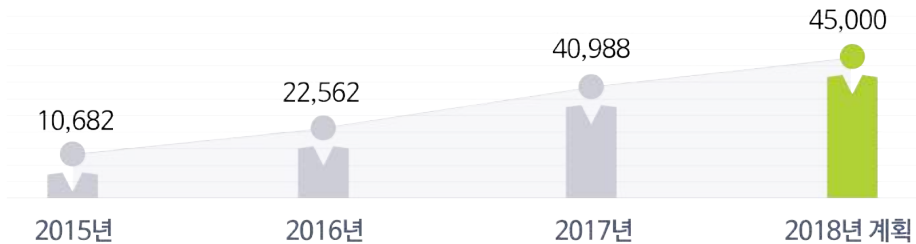
또한 1가구 10주 쥐방울덩굴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전역에 꼬리명주나비를 관찰할 수 있는 5개년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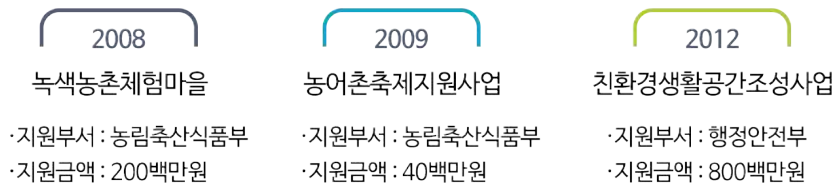
■ 공동체 활동 실적



■ 방문객 수 (단위: 명)



■ 정부 지원 실적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마을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수상마을 사례집

04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금상. 제천시 도화마을	 106
은상. 거창군 갈지마을	 112
동상. 진안군 상가막마을	 118
입선. 제주시 용흥리마을	 124
입선. 용인시 상덕마을	 130

1 정이 있어 머물고 싶은 행복한 마을 제천시 도화마을

복숭아꽃이 만발한 도화마을은
아름답고 깨끗한 무릉도원으로 재탄생하고
공동체를 형성하여 마을 소득이 증대하였습니다.

위치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옥순봉로 1455

인구 62명

가구 29가구

마을자원 청풍호, 취적대, 청풍대교, 개복숭아나무, 송이, 청풍호 수상레저,
패러글라이딩, CLUB ES 리조트, 청풍 리조트,
청풍호 관광 모노레일, 청풍 벚꽃 축제

**행복마을
성공비법**

- 작은 마을 사업 도전으로 변할 수 있다는 자신감 고취
- 마음의 소통창구! 마을 회의와 생신 잔치
- 함께 만들어내는 도화마을의 미래, 개복숭아 효소 체험 축제



제천시
도화마을

106
107

아농캠
름촌페
다만인
운들
기



복숭아꽃 만발한 아름다운 농촌 마을로 변화

도화마을은 능강계곡 줄기에 취적대를 비롯한 청풍호와 같은 빼어난 자연경관 자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주댐 건설로 마을 인구수가 감소하였고, 고령의 주민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대로는 도화마을의 미래가 없다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꽃 가꾸기, 깨끗한 농촌 환경 가꾸기 활동과 함께 마을 주민 간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복숭아꽃 만발한 아름다운 농촌 마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마을을 조성하면서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무엇인가요?

첫째, 매달 마을 회의와 생신 잔치를 통해 모든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화합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환경 정화 활동과 꽃밭 가꾸기 등을 통해 마을 환경이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져서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농촌 마을에서의 삶이 풍성해졌습니다. 셋째, 개복숭아 효소체험 축제를 개최하여 소득 배분의 기회가 생기고, 지속적인 마을 발전 기금을 축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문화 활성화와 마을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

도화마을은 수몰에 대한 상실감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충청북도 행복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마을 청소를 시작하였고, 마을 사업에 대한 교육의 기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행복 마을 만들기 도내 1위의 성과를 얻으면서 성취감과 자신감이 생겨 변화의 급물살을 탈 수 있었습니다. 작은 환경의 변화로 마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면서 마을 주민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유기농 생태 전문가, 관련 교수, 컨설팅 업체 등의 자문단이 마을을 지원하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진 마을 견학과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유치 등을 통해 마을의 꿈과 비전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달라진 주민 의식**과 **깨끗해진 환경 변화**로 매월 어르신 **생신 잔치** 및 **마을 회의**, **난타 동아리 활동**과 같은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었고, **개복송아 축제**를 **개최**하여 **마을 소득을 증대**할 수 있었습니다.



도화마을은 **공동체 문화 활성화와 마을 소득 증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마을 주민이 함께 협심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축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개복송아, 아마란스, 돼지감자, 구절초와 같은 작물을 마을 주민 공동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이를 미래의 마을 공동 소득 자원으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취적대까지 연결되는 난간 공사 중입니다. 사계절 방문객이 함께할 수 있는 어울림 마당이 있어 행복한 마을, 함께 웃고 소통할 수 있는 활기찬 마을, 유기농 생태 마을에서 만들어 낸 건강한 먹거리가 있는 마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마을 주민을 하나로 모으는 마을 회의와 생신 잔치

도화마을은 마을 회의를 통해 모든 것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마을로 초청해 도움을 얻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회의가 끝나면 어르신 생신잔치를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서로 소통하면서 마을 사업을 진행합니다.

마을을 가꾸고 운영하는 것에 있어 주민들 스스로가 해야 한다는 마음이 커졌고, 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개복송아 효소 체험 축제

도화마을은 개복송아 나무를 휴경지나 도로변을 활용하여 가꾸고 있습니다. 매년 5월 개복송아 열매를 이용한 개복송아 효소 체험 축제를 개최합니다. 올해 4회째 개최를 했으며, 자매결연을 한 인천 주안 3동 마을과 방문객들이 참여합니다.

앞으로 꽃을 이용한 축제를 기획하고 있으며, 송이를 활용한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을성과

■ 경관 환경 활동 실적



환경정화 활동

2015년 1월 ~ 현재 (월3회 이상)
앞마당 정리정돈(수시), 마을 대청소



마을 경관가꾸기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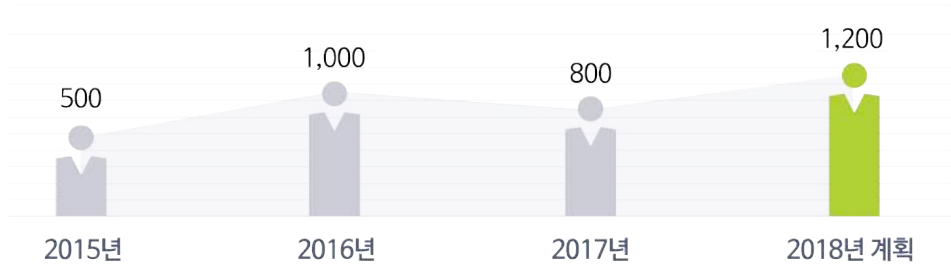
2015년 1월 ~ 현재 (월3회 이상)
공동 꽃밭 가꾸기 등



행복우체통과 1가구 1화단 가꾸기

2018년 1월 ~ 현재

■ 방문객 수 (단위: 명)



■ 정부 지원 실적

2015
충청북도
행복마을사업 1단계
·지원부서: 충청북도
·지원금액: 3백만원

2016
충청북도
행복마을사업 2단계
·지원부서: 충청북도
·지원금액: 30백만원

2017
충청북도
행복마을사업 4단계
·지원부서: 충청북도
·지원금액: 50백만원

2017
도화리 보행자도로 및
안전인도 설치
·지원부서: 제천시
·지원금액: 60백만원

2018~2019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지원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금액: 500백만원

2

내일이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행복한 마을 거창군 갈지마을

오·폐수와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갈지마을은
도랑 살리기 운동 등을 통하여
깨끗하고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위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지내길 62

인구 282명

가구 134가구

마을자원 도랑, 마을 산책로, 푸른 방풍림, 꿈꾸는 작은 도서관,
마을 행복 도우미 센터, 유용 미생물 배양실, 마을 습지,
사과, 한우, 블루베리 등 친환경 농산물

행복마을
성공비법

- 오염된 마을 앞 도랑 살리기
- 마을 주민과 미래의 자원인 어린이 등 인적 자원의 중요성 인식
- 미래의 우리 자손을 생각하는 마음



거창군
갈지마을

112
113

아름다운
농촌마을
만들기



주민들의 노력으로 아름다운 마을 경관 조성

갈지마을은 선화 공주 설화와 향가 한수가 구전으로 전해오는 마을로 대대로 효를 숭상하고 푸른 고목의 방풍림이 감싸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축산 오·폐수와 농약 등의 유입으로 악취와 무단 방치된 쓰레기로 환경이 파괴되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오염된 마을이었습니다. **주민들이 힘을 모아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운동과 도랑 살리기 운동을 하여 사람이 살기 좋은, 살고 싶은 마을로 변화하였으며 대한민국 유역통합 도랑 살리기 운동의 발원지 마을이 되었습니다.**



■ 깨끗한 마을을 조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식 변화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참여 의식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초기에는 주민들의 무관심과 불참으로 아주 힘들었습니다. 점차 방치된 쓰레기와 악취를 없애 미관을 가꾸면서 조금씩 마을이 바뀌어 가고, 주민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 혼자만이라도’라는 의식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마을 주민 전체가 동참하고, 자연스레 주민 간 갈등도 해결되었습니다.



깨끗한 마을! 활기가 넘치는 마을로 변화

갈지마을은 주민들 스스로가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보자고 회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던 차에 **아름다운 농촌 마을 만들기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선진 사례를 견학하고, 농촌 현장포럼과 친환경 농법 등의 교육을 통해 인식 변화를 끌어내 주민들의 오래된 갈등과 이해관계를 해결하였습니다. 점차 주민 간 소통과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마을에 대한 애향심이 생기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활기가 넘치는 마을로 변화하였습니다.

하나로 뭉친 갈지마을 주민들은 발 벗고 나서 **마을 환경 정화**에 힘썼습니다. 마을 주민 공동작업으로 깨끗하게 치워낸 도랑에 창포와 부들을 식재하고, 마을 곳곳에 꽃 심기를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이 참여한 마을 살리기를 통해 다슬기와 가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름다운 농촌 환경, 아름다운 안전 농산물, 아름다운 마을 주민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30대 실천 과제를 발굴하고 지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연간 5~60개의 마을이 벤치마킹하기 위해 다녀갈 정도로 명성을 얻고 있으며, 참새방앗간, 통통방앗간 등 **우리나라방아 역사박물관을 복원**하고, 6차 산업 선도 농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농촌 체험 마을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화공주 설화와 향가 등 콘텐츠 발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숨 쉬고 전통이 함께하는 마을로 만들 것입니다.





다양한 환경 가꾸기를 통한 도랑 살리기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방치된 쓰레기와 농약, 축산 농가가 무단 방류한 오·폐수 등의 악취로 오염된 도랑을 살리기 위한 운동을 하였습니다. 마을 대청소와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을 실행하였으며, 친환경 퇴비를 생산하고 우렁이농법을 사용한 친환경 농법으로 악취와 오염을 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깨끗한 1급수가 흐르는 청정 도랑으로 변하였습니다.

마을 주민이 만드는 푸른 방풍림과 깨끗한 마을 길

마을을 감싸고 있는 푸른 고목의 방풍림을 보호하고, 깨끗하고 쓰레기가 없는 마을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방풍림의 보식과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난간, 가로등, 벤치 등을 설치하여 산책로를 만들고 정자 건립을 통해 공원화하여 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마을 골목마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를 발굴하여 이야기가 있는 마을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을성과

■ 경관 환경 활동 실적



마을풀베기

기간 : 2015년/3회, 2016년/3회,
2017년/4회, 2018년(예상)/4회



행복홀씨입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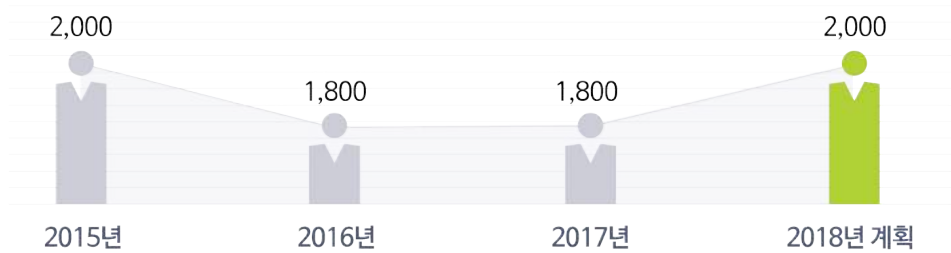
기간 : 2016년/4회, 2017년/4회,
2018년(예상)/4회



마을화단조성 및 대청소

기간 : 2015년/12회, 2016년/12회,
2017년/12회, 2018년(예상)/12회

■ 방문객 수 (단위: 명)



■ 정부 지원 실적

2013~2014

도량살리기사업

·지원부서: 수자원공사
·지원금액: 147백만원

2016

태양광에너지설치사업

·지원부서: 거창군
·지원금액: 100백만원

2017

마을가꾸기 현장포럼

·지원부서: 거창군
·지원금액: 2백만원

2017

매력있는 마을만들기사업

·지원부서: 거창군
·지원금액: 3백만원

2017

함께하는 마을만들기사업

·지원부서: 거창군
·지원금액: 10백만원

2018

매력있는 마을만들기사업

·지원부서: 거창군
·지원금액: 3백만원

2018

농촌현장포럼

·지원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금액: 7백만원

3

청정자연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마을 진안군 상가막마을

하늘공원이 있는 상가막마을은
돌담·벽화·꽃길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위치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상가막길 6

인구 35명

가구 20가구

마을자원 진안고원, 하늘공원, 돌담, 전망대, 꽃길, 상앗소리, 울무

행복마을
성공비법

- 계속해서 작은 성공의 기쁨 성취
- 마을일의 신뢰도와 투명성 높임
- 농촌은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것



진안군
상가막마을



118
119

아농캠
름촌페
다만인
운들

순철이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깨끗한 마을 만들기 추진

상가막마을은 산들이 발밑으로 멋지게 깔려 있어 진안고원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환경을 갖추고 있는 마을입니다. 해발 450고지에 자리 잡아 비탈지고 열악한 환경의 마을로 마을에는 쓰레기가 넘치고 주민 간 불신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농사일을 병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이 발 벗고 나서 운영, 회계 등 각 역할을 배분하였고, 경사진 땅에 돌담·벽화·꽃길 등을 만들었습니다.**



■ 깨끗한 마을을 조성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사업 초기에는 마을 청소 및 화단을 관리하는 일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가 1트럭으로 15대 분량이 넘게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힘들었지만, 며칠을 고생하면서 더욱 합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와 함께 기초적인 마을 조사부터 시작하여 500만 원 이하의 작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그 성공들을 함께 맛보면서 주민들도 점점 마음을 열고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노력으로 아름다운 마을 가꾸고 행복한 삶 향유

상가막마을은 마을 활동을 하더라도 농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간을 조율하여 움직입니다. **마을 박물관을 짓거나 돌담을 만들 때도 농한기인 12월에서 2월 사이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마을 정비나 꽃 심기 등의 활동은 아침 시간을 활용**하였습니다. 마을 주민이 함께 마을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회관에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한 후 각자의 일터로 향합니다.

처음에 우리 마을은 무조건 안 된다는 패배 의식과 떨어진 자존감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만들기를 시작하고 작은 변화들과 성과들을 함께 느끼면서 주민들의 자존감이 상승하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을 해설이나 탐방, 체험 등 마을 일을 진행할 때면 열정적으로 참여합니다. 마을 경관이 변하고, 주민들의 마음이 변하고, 주변에서 인정받고 즐거운 마을로 변화하였습니다.

상가막마을은 **마을 해설 탐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마을 해설사들과 함께 4~50분 마을 해설을 들으면서 마을을 탐방합니다. 그리고 **전통 장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상엿소리 듣기 체험**이 있습니다. 마을의 특산물인 울무 떡 만들기, 울무 떡메치기, 인삼 튀김 만들기, 염소탕 끓이기, 염소 수육 삶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천마 재배를 활용한 마을 공동 소득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행복한 삶을 준비하는 마을이 될 것입니다.





마을 주민의 노력으로 일군 으뜸 마을 가꾸기

온 주민의 관심과 참여로 비탈지고
열악한 마을을 아름다운 마을로 가꾸기
위해 하늘공원의 산책로를 조성하
였습니다. 돌담길을 조성하고, 벽화
를 그리고, 꽃길을 만들었으며, 마을
박물관 증축을 통해 으뜸 마을 가꾸
기를 실행하였습니다.

마을 환경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마을로
변화하기 위해 주민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생애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전통 장례 문화

상가막마을은 전통 장례 문화에서 꽃
상여를 짊어지고 부르는 상여소리를
복원하여 선보이고 있습니다. 풍물과
상여소리를 보존하여 잊고 지낸 전통
문화를 이어나가는 마을이 되려고 합
니다.

전통 장례 문화 체험을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주기를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을성과

■ 경관 환경 활동 실적



꽃화단 조성 및 마을정화
기간: 2016년



마을박물관 조성
기간: 2017년



디딜방아 복원
기간: 2017년



상여소리 복원
기간: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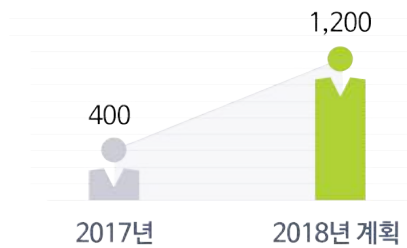


산제당 복원
기간: 2018년



현장포럼 운영
기간: 2018년

■ 방문객 수 (단위: 명)



■ 정부 지원 실적

2016

그린빌리지

·지원부서: 진안군
·지원금액: 5백만원

2017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지원부서: 진안군
·지원금액: 17백만원

2018

으뜸마을가꾸기

·지원부서: 진안군
·지원금액: 45백만원



입선

사람이 향기 나는 향기 마을 제주시 용흥리마을

탐스러운 감귤이 열리는 용흥리마을은
주민의 다양한 역량 강화를 통해
공동체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용로 144

인구 379명

가구 163가구

마을자원

마을회관, 노인당, 마을운동장, 자연 체험장, 본향 제단, 마을 연못,
제완이동산, 감귤, 키위, 고추, 옥수수, 브로콜리, 비트, 수박

행복마을
성공비법

- 마을주민들의 도전적인 사고방식
- 다양한 역량강화교육과 지원
- 공동체 향상을 위한 축제 개최



제주시
용흥리마을

124
125

아농캠
름촌페
다만인
운들
기



마을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역량 강화

용흥리마을은 감귤 재배를 주산업으로 하는 농촌 지역으로 세대 간 전통적인 신뢰 관계로 정을 나누는 따뜻한 마을입니다. 화산재의 척박한 땅 위에서도 장차 더 나은 삶을 지향해 온 전통에 따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수없이 논의하며 발전방안을 세워나가는 미래지향적인 마을입니다. 마을의 노령화와 FTA로 인한 소득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마을 구성원들이 끊임없는 학습 의지와 높은 참여 의식을 가지고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재능기부자와 마을 만들기 종합센터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교육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 용흥리마을의 앞으로 목표는 무엇인가요?

‘ECO 2020’이 목표입니다. 2020년까지 가구당 1억의 경제 소득(economy), 500명 이상의 상주민(citizen), 친환경 생태 마을(organic)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중장기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 간 정과 예의를 갖추며 활기 넘치는 마을이 될 것입니다.



마을 주민 모두가 힘을 합쳐 공동체 향상을 위해 노력

용흥리마을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5대에 걸쳐 이장이 이임됨에도 불구하고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 회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마을 주민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마을 및 농장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였으며, **소비자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복지 향상과 소규모 동아리 활동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텃밭 나눔 장터를 형성**하였습니다. 학사모 모양의 정거장을 나눔 장터로 개조하여 마을 농가에서 재배하는 계절별 채소, 감귤 등을 주민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통째로 **농산물 우수 관리(GAP) 인증**을 받았습니다.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까지 농사 전 과정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을 받은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또한 **타이팩 농법을 적용하여 감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타이팩이라는 하얀 부직포를 깔아서 땅 온도를 높이고, 햇빛을 골고루 들게 하고, 물을 조절하는 농법입니다. 이러한 농법으로 재배한 감귤을 고당도, 고품질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용흥리마을은 격년 **한마음 체육대회**와 매년 **합동 세배**를 통해 공동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어르신들을 아래로는 아이들을 섬기는 섬김 하우스 조성, 마을 회관을 주민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소통 하우스 조성, 굴 길과 허브 길을 조성하여 사람 향기, 꽃향기, 꿈 향기 발산, 사람이 희망이 되는 주민들이 행복한 향기마을을 가꿀 것입니다.



마을 주민의 화합의 장이 열리는 한마음 체육 대회

한마음 체육대회는 마을 주민의 화합을 위해 청년회 주최로 격년 치르는 행사입니다.

마을을 떠나 직장을 따라 제주시로 이사하여 살아가던 향우회원들도 이날을 계기로 마을을 찾아옵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교류하면서 얼굴을 익히고 정을 두터이 할 기회의 마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른 공경의 예절을 배우는 있는 합동 세배

합동 세배는 청년회 주최로 매년 설이 틀날 노인회관에서 치르는 행사입니다.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고향을 떠나사는 향우회원들도 참여하여 웃어른께 세배를 드리는 과정입니다.

세배와 동시에 부녀 회원들이 준비한 꿩메밀 칼국수를 먹습니다. 세배에 참여한 전원이 세대 간, 이웃 간 친목을 꾀하며 덕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을성과

■ 공동체 활동 실적



회원 수
30명

청년회

2016년: 10회
2017년: 10회
2018년 계획: 10회



회원 수
40명

부녀회

2016년: 12회
2017년: 11회
2018년 계획: 15회



■ 정부 지원 실적

2013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예비마을

·지원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금액: 10백만원

2014

베스트 특화마을

·지원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금액: 56.2백만원

2015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추진마을

·지원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금액: 111백만원

2018

모다들영 탐나는 사업

·지원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금액: 11.14백만원



난개발과 환경오염에 맞서
아름다운 마을 조성

입선 용인시 상덕마을

상덕마을은 다양한 환경 보존 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농촌 마을 가꾸기를 실천하여
주민의 화합과 소통을 이뤄냈습니다.

위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자로 133번길 3

인구 446명

가구 125가구

마을자원 상덕마을 회관, 무봉산 등산로, 제일너싱흙, 상덕 저수지, 상덕천,
표고버섯, 옥수수, 감자, 엄나무순, 노인회, 장년회, 부녀회,
도예가, 전통단청기술자

**행복마을
성공비법**

- 주민 스스로 환경 보존 활동을 실천하여 아름다운 마을 형성
- 인근 지역 학교와 연계한 협업체계 구축
- 주민 화합과 소통을 위한 문화공동체 활동 진행



용인시
상덕마을

130
131

아농캠
를
촌
페
다
만
인
들
기



환경이 훼손된 마을을 되살리기 위해 아름다운 마을 조성

상덕마을은 산림 파괴, 난개발, 환경오염 등 수많은 갈등과 고민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심각한 불법 쓰레기 문제로 주민 간 불신과 다툼이 발생하는 결과까지 초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분위기가 개인주의화 되어가면서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못하였습니다. 2017년 깨끗한 마을 만들기를 주제로 한 농촌 현장 포럼을 계기로 이와 연계하여 아름다운 농촌 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정기적인 주민 회의를 거쳐 **아름다운 농촌 마을 만들기 45대 실천 과제를 선정하였고, 지속해서 실천함으로써 깨끗한 마을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 앞으로 마을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상덕마을은 깨끗한 마을 환경 조성과 더불어 표고버섯·옥수수·감자·고구마의 발작물과 두릅·엄나무순·오가피의 산나물 등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마을내 로컬푸드 판매장을 조성하여 마을 자원을 홍보하고 판매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후화된 마을 회관을 재정비하고 마을 주민의 산책로를 만들어 실내 외 여가 활동 공간을 확충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농촌 환경 조성 및 마을 내 문화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을 확대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농촌 마을 가꾸기 실천을 통해 주민 화합 모색

지속적인 환경 파괴로 훼손된 상덕마을은 지저분한 마을 환경, 농가 피해, 특색 없는 마을 이미지 등 많은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마을 입구 **불법 쓰레기 투기 장소를 아름다운 공동 화단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사랑의 꽃밭, 우정의 꽃밭, 믿음의 꽃밭, 기쁨의 꽃밭, 화합의 꽃밭 총 5개의 공동 화단을 만들었으며, 마을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담아 화단 이름을 정하고 주민의 재능 기부를 통한 표지판을 제작하여 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청결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업 관련 주민 교육, 병해충 방제 활동, 농약병 공동 수거, 폐비닐 수거 활동, 농가 안전 관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용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용인바이오고등학교 등 **인근 지역 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용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벽화동아리는 마을 자원을 테마로 벽화를 조성하였고, 용인바이오고등학교는 화분을 기부해 꽃밭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농촌 마을 만들기를 위해 운영위원회는 환경정비분과, 경관가꾸기분과, 친환경 농산물분과, 농업인교육분과 등 4개 분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발전 회의를 진행하여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들이 화합하여 아름다운 농촌 마을 만들기를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오염을 극복하기 위한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

상덕마을은 아름다운 농촌마을 만들기 45대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실천하여 마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농촌 환경, 깨끗한 농산물, 바른 농업인 육성으로 분야를 세분화하여 단기 실천 과제와 장기 실천 과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32개의 과제를 수행하였고, 13개의 과제를 추가적으로 실천할 것입니다.



능력 있는 인적 자원을 활용한 문화 공동체 활동

상덕마을은 도예가, 전통단청 기술자, 요리 연구가, 목공 연구가 등 다양한 역량을 보유한 인적 자원이 존재합니다. 마을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방문객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특산물인 표고버섯을 활용한 표고 전골, 표고 만두 등을 만드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마을의 신선하고 맛있는 농산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마을성과

■ 주민 실행과제 리스트

마을 발전을 위한 주민노력, 실천과제목록

2017년 활동

2018년 활동

농촌현장포럼(5회차)	마을발전 워크숍
하천변 환경정비 하천변 쓰레기 수거	페비닐 수거활동
공원 내 운동기구 설치	마을 대청소
농약병 공동수거활동	표고버섯 개별인증마크
유용 미생물 사용	육계 안전관리 인증
페툰밥 유기농 비료사용	친환경 표고농장 출입관리
친환경 표고재배사 청결관리	

마을발전 주민회의(2회)	마을공동 방역활동 실시
10대 마을규약 제정	농촌현장포럼 (추가진행)
병해충 방제활동	쓰레기 분리수거
친환경 표고재배사 청결관리	마을발전 주민회의(2회)
쓰레기 투기장소 꽃밭조성	마을 진입도로 꽃길조성
마을안길 잡초제거	고라니 피해방지 울타리 설치
용인대 연계 마을벽화조성	공터 해바라기 식재, 공터 맨드라미 식재
마을공동 방역활동 실시	

■ 정부지원실적

2018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신청 및 선정

·지원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금액 : 50백만원

134
135

아농캠
름촌페
다만인
운들
기



행복마을 만들기를 통해 농촌의 희망 찾아 - 제5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현장 속으로 -





2018년 08월 30일(목)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제5회 행복 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 농촌의 위기 속에서 우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전국 3,220개 마을 중 도별 예선과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20개 마을이 콘테스트에 참여하였습니다.

콘테스트 결과 소득·체험 분야에서 홍성군 거북이마을, 문화·복지 분야에서 밀양시 백산 마을, 경관·환경 분야에서 홍천군 열목어마을,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 분야에서 제천시 도화마을이 가장 우수한 마을로 선정되어 금상을 받았습니다. 금상 수상 마을에는 시상금 3,000만 원을 수여하였습니다. 또한 금상 수상 마을 중 도화마을이 대통령상을, 나머지 3개 마을은 국무 총리상을 받았습니다.

‘제5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분야별 금상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를 만나 수상 소감을 들어보았습니다.

홍성군 거북이마을 전병환 위원장

“주민 모두가 힘을 합쳐 협업해준 덕분”

“주민모두가마음을합쳐주시고, 협업해주신덕분입니다. 마을 사업이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 규정화 시킨 점, 젊은이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청년 문화가 교류 되고 있다는 점, 소득이 안정적으로 주민에게 분배된다는 점 등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마을 내 기업이 좀더 일자리를 늘려 모든 주민이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사회복지 시설로 변한 농촌이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제대로 된 기업을 주민의 힘으로 성장시켜 코스닥에 등록할 것입니다. 또한 젊은이가 머물 수 있는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밀양시 백산마을 신종완 부위원장

“금상을 받은 것은 백산마을의 시작”

“낮에는 농사로, 밤에는 연습을 통해 낳은 결과물이며, 개인이 아닌 마을 주민 모두가 함께 만든 성과입니다. 수상이 백산마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미래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로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모여 마을 미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심기일전하여 추가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개발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 최고의 마을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천군 열목어마을 임정분 위원장

“마을 공동체와 함께 행복해지는 의미 깨달아”

“이번 기회로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이 배가 되고, 마을 공동체와 함께 행복해지는 의미를 다시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정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숲과 환경뿐만 아니라 농촌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전문 교육 역량을 갖추어 방문객을 맞이하는 체험 프로그램의 활성화 덕분에입니다. 마을 주민이 뭉쳐 성장하게 하는 큰 성과가 되었습니다.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마을 자원을 활용한 치유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민이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마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마을의 경관과 환경을 아름답게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제천시 도화마을 정선옥 위원장

“지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열악한 환경에서 모두의 노력으로 대통령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망과 힘이 사라지고 지속해서 다양한 마을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기쁩니다. 마을의 비전에 대해 생각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활동을 소득으로 이어나가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아갈 것입니다. 개복숭아 축제와 콘테스트 등을 통해 마을 주민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같이 하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경관 사업으로 마을을 더 가꾸어 복사꽃 축제로 발전해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마을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확장할 계획입니다.”



‘18 제5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대회 현장 속으로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마을





'18 제 5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수상마을 사례집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마을

발행인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총괄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 김철

기획 | 농림축산식품부 이교남, 고은지/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지역개발과

TEL 044)201-1560~1

발행일 | 2018.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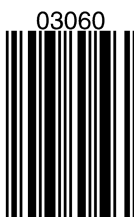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비매 품/무료



9 791186 183250

ISBN 979-11-86183-25-0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8040049)